

2026.03.06.(금) Signal Repor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2026.03.06(금) Signal Report

< 전일 시장 정리 >

전일 시장 정리는 한국에서 오직 시그널리포트만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정리'입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어야 '전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리포트는 '시그널 이브닝'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며, 익일 서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실력 향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최신의 기사를 봐도 과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한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요.

< 반 / 디플 >

#글로벌 증시 반등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100%

삼성전자 (+11.27%), SK하이닉스 (+10.84%), 반도체 소부장 등: 미-이란 물밑 접촉설에 미 증시 상승 마감,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퇴출 공식화 등 반도체주 지수 상승 견인

테크윙 (+30.00%): SK하이닉스향 HBM 검사장비 '큐브 프로버' 최종 퀄테스트 통과 및 본격 납품

에이팩트 (+29.96%): 엔비디아향 차세대 메모리 모듈 'SOCAMM2' 테스트 양산 시작 및 실적 성장 가시화

유니테스트 (+28.10%), 디아이 (+24.72%): SK하이닉스 HBM4용 번인 테스터 양산 검증 완료, 공급망 진입

엑시콘 (+24.08%): 삼성전자와 302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티씨케이 (+22.81%): eSSD 및 9세대 낸드용 SiC 포커싱링 수요 폭증과 중국향 신규 고객 확보로 목표가 상향

하나머티리얼즈 (+22.63%): 선단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부품 교체주기 축소 등, 2027년까지 증익 사이클 전망 및 최대 실적 기대

< 중동전쟁 / 원자재 >

#UAE, 천궁-II 추가 구매 긴급 요청

한화시스템 (+30.00%), LIG넥스원 (+23.26%), RFHIC (+17.89%): UAE의 천궁-II 추가 구매 긴급 요청 및 실전 요격 성능 입증

한국ANKOR유전 (+29.83%), 흥구석유 (+10.10%):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유가 상승세 지속

알멕 (+27.27%), 삼아알미늄 (+22.87%): 알루미늄 가격 2년내 최고치 경신 및 고전도 알루미늄 소재의 구리 대체 효과 부각

< BIO >

현대바이오 (+29.97%), 현대ADM (+29.96%), 젠큐릭스 (+22.63%): '페니트리움' 기반 난치암 시장 공략을 위한 사명 변경 추진 및 글로벌 기술이전 본격화

알지노믹스 (+29.92%): 세계 3대 암학회 AACR에서 항암 유전자치료제 임상 결과 구두 발표 연사 선정

큐리언트 (+29.89%): 미 FDA 우선심사권(PRV) 거래 급등에 따른 자산 가치 및 수혜 기대

에임드바이오 (+22.42%): 코스닥150지수 특례 편입, ADC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및 올해 2건 이상의 글로벌 임상 진입 추진

< 현대차 / 로봇 >

현대차 (+9.38%), 현대모비스 (+8.27%), 현대무백스 (+21.37%): 현대모비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핵심 부품 추가 수주 기대

< 개별주 >

#스테이블코인법 단일안 곧 확정

두산에너지빌리티 (+12.28%), 우리기술 (+29.94%), 태웅 (+27.26%): 여야 방미사절단, 23일 미국 의회를 찾아 원전 투자 제안 및 테라파워의 미국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 획득

미래에셋생명 (+29.98%): 보유 자사주의 93%에 달하는 6296만주 전량 소각

헥토파이낸셜 (+29.92%), 다날 (+17.70%): 스테이블코인법 확정 임박 및 다날, 서클·바이낸스 협업 외국인 결제 서비스 4월 출시

아이티센글로벌 (+26.93%): 금 가격 상승 및 Web3 사업 호조로 지난해 영업이익 378% 증가

그린광학 (+21.68%): 미사일 시커용 적외선 핵심 소재 ZnS 국내 유일 생산, LIG넥스원 등에 납품. 인도 우주·방산기업과 MOU 체결

에코프로 (+20.18%): 11일, 인터배터리에서 로봇용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 등 공개

대주전자재료 (+24.07%): 스페이스X 관계자 방문, 태양광 관련 제품 공급 및 샘플 테스트 논의

< Daily point >

'Daily Point'는 당일 증시의 시황을 설명 드리는 코너입니다.

시황을 알아야 업황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윙과 장투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하루 쌓아가는 'Daily Point'를 통해 주식 실력 근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굿모닝. 시리언즈 여러분.

어제 코스피가 +11% 반등했습니다. 전날 -12% 폭락 다음 날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패닉이 맞았는데요. 다만, 이게 진짜 끝인지 불안해서 손이 안 나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3월 들어서 여전히 한주도 사고 팔지 않고 가만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있네요..

한국의 급등락과 별개로 글로벌에서는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 3월 변동성도 2025년 4월의 변동성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쓰는 5일 저녁 기준, 어제 미국 서비스업 PMI가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100은 +1.5%, 비트코인은 \$73,000을 돌파했습니다. S&P 500은 지난 금요일 증가 대비 아직 -1% 미만입니다. 전쟁이 5일째인데, 지수 손실은 1%입니다. 한국은 거의 -20% 넘게 빠졌다가 하루 복구했는데요. 어병병하죠?

이런 게임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보시죠.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의심스러운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일단 골드입니다. 금이죠. 달러 약세에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달러는 약세입니다. 은 연내 6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자산만으로 보느냐? 네. 물론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금/주식 비율(Equity/Gold Ratio)이 10년 신저점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대비 금 비율은 12년 만의 최저, DAX 대비 금은 13년 만의 최저. 이 비율이 하락한다는 건 금이 주식을 구조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안전자산인데 주식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의심스러운 때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죠.

어? 그런데 선생님. 이번 중동 위기때 금은 그렇게 재미를 못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준점을 못잡아서 그렇습니다. 금은 달러약세에 대한 헷지 수단입니다. 중동 지정학 헷지 수단이 아니죠. 잠깐 달러 강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금이 눌린겁니다. 달러 강세는 꺾입니다. 그 시점이 금 재진입 시점이 되겠죠.

주식 시장은.. 무조건 오르죠.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딥바잉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 보지도 말고 딱 1년간 미국만 본다 치면... 다른 기준 다 빼버리고.. ㅎㅎ

"전일 하락 후 매수" → 무려 35퍼 수익률.

"전일 상승 후 매수" → 무려 -11% 손실률.

지금 빠지면 오르는 장이라는 거예요. 한국이요? 더 심하죠. 무조건 빠지면 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이는 .. 지금 좀 가려져 있는거. 미국이 AI 공포 트레이드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SW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도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거죠. 중동은.. 알루미늄 쪽만 좀 관심 두면 될 것 같고.. 이제 호르무즈가 원유 외에 원자재 어디를 건드리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엄청난 실적+가이던스상향+자사주매입 패키지를 발표했죠. AI 탄탄합니다. 미-일 원자력 투자 건들도 발표되고.. 시장 급등락은 기회의 영역이 된다..
결국 9.11 사태 유형으로 끝나갈 것 같습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Nomad 드림.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삼성전자 #엔비디아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주: 티엘비,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씨키트, 제주반도체, 쓰리에이로직스, 에이팩트,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엑시콘, 티에프이, 센서뷰, ISC, 오킨스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

젠스황·최태원 美 심장부서 재회...HBM 판 키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황 CEO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되는 '베라 루빈' 플랫폼의 개발 상황과 내년에 판매되는 베라 루빈 울트라 AI 가속기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HBM인 HBM4E가 들어간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재회를 통해 반도체 외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SK그룹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사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주: 한미반도체, 와이씨, 네오셈, 와이씨켄, 테크윙, 유니테스트, 디아이, 아이에스티이, 피엠티, 이오테크닉스, 켐트로스, 아이엠티, 제너셈, 워트, 엠디바이스, 미코, 마이크로투나노, 하나마이크론, 샘씨엔에스, 국전약품**

#스페이스X

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음 수순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다. 당장 스페이스X 가치만 놓고 보면 IPO 흥행에 이견을 달긴 어렵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50억달러,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약 80억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9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광대역 위성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위성 운영사다.

- **관련주: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 아주IB투자, 스피어, 에이치브이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틸지주, 컨텍, AP위성, 와이제이링크, 모델솔루션, 센서뷰, 나노팁, 솔루엠, LK삼양, 루미르, 이녹스첨단소재, 신세계 I&C, LG에너지솔루션, 성우**

#방산

"천궁-Ⅱ 더 빨리 달라"...UAE, 조기 공급 요청

UAE는 이란의 공격 이후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천궁-Ⅱ 포대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급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 국가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군사 충돌이 격화한 중동 지역으로 장비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다.

- **관련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앤씨솔루션,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퍼스텍, 한일단조, 코스텍크놀로지, RF시스템즈, 삼현**

<Signal Digest>

[경제 일반]

코스피, 9.6% 올라 5,580대...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 상승률(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5조2천420억원, 15조5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31조2천680억원이다.

코스피 5500·코스닥 1100 극적 반등...'검은 수요일' 낙폭 회복

3일 연속 폭락은 없었다... 코스피 9% 폭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톱이 견인

"나 빼고 다 야수의 심장이었네"...개미들, 레버리지ETF에 1.4조 베팅

골드만삭스 "글로벌 증시 상승 사이클 막바지...단기조정 압력 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4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수익률 분포는 과거 역사적 궤적의 상위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지역의 밸류에이션 역시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낮아지며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이 구조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결합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의 기반이 유지되는 한 이번 하락은 장기적인 약세장보다는 정상적인 조정 국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JP모건 "삼전·SK하닉 여전히 좋다...코스피 7500 전망"

이날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6000포인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강세장 복귀와 개인 자금의 국내 회귀가 지속될 경우 최대 7500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상향 추세이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과열됐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조정 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며 부담도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천 업종으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자사주 소각·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지주회사와 보험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6월 시행'서 물려서...하반기 연기 가닥(종합)

[미중 패권전쟁]

중군용기 6일연속 '대만 출격' 중단...트럼프 방중 앞 수위 조절?

영국·필리핀서 잇단 '중간첩' 사건에...中 "악의적 연관 짓기"

[국제-미국]

Dow falls 1,100 points as oil resumes surge, hitting \$80 a barrel amid Iran conflict

유가 80달러 돌파 및 이란 갈등 재점화에 다우 지수 1,100포인트 폭락

하루간의 짧은 반등을 뒤로하고, 목요일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24포인트(2.3%) 급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1.4%와 1.3% 하락했습니다. 이번 투매 장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시 타격이 큰 보잉(Boeing)과 캐터필러(Caterpillar) 등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했습니다.

유가는 이란이 미사일로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힌 직후 급등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8% 폭등하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거래되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5% 상승하며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3000건...시장 예상치 밑돌아

Iran oil shock: Fed pick Kevin Warsh apt to cut interest rates anyway.

이란 전쟁 유가 충격에도 연준 차기 의장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중단 안 할 것

美법원 "198조원 상호관세 납부액 돌려줘라"...환급 절차 개시 명령

[국제-유럽]

European stocks close lower as Iran war continues to dominate sentiment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중국]

[중국증시-마감]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정책도 뒷받침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안팎 도전 속 35년만에 최저(종합3보)

'5%대 성장' 고집 꺾은 중국, 국방비는 첫 400조원 돌파

[국제-그외]

[도쿄증시-마감] 중동 불안 재점화에도 닛케이 반등...1.90%↑

이란 물밑 협상, 이스라엘 정권 흔들기...전쟁 항방 '안갯속'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간접 접촉을 시도하며 전쟁 출구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다만 이란은 즉각 부인하는 등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 접촉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美, 2차 세계대전 후 잠수함 어뢰 첫 사용...중동 긴장감 고조

미, 어뢰로 이란 군함 격침...파키스탄·캐나다도 참전 시사

[원자재]

U.S. crude oil tops \$80 per barrel as escalating Iran war disrupts global fuel supplies

이란 전쟁 격화로 글로벌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국 원유 배럴당 80달러 돌파

전쟁 나자마자 휘발유 1800원 돌파... 정부, 기름값 직접 통제한다

러, 유가 불안 속 "유럽행 가스 수출 중단 논의"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기업들과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전쟁 자금줄을 끊겠다며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유럽 공급을 멈추고 새 시장에 진출해 자리잡는 게 유리할 지도 모른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관련주: 지에스이,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한선엔지니어링, SNT에너지, 큐로홀딩스**

Gold rises on safe-haven bid from Iran war, firm dollar limits gains

이란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입찰로 금값 상승, 달러 강세로 상승 제한

[정부정책]

與 "PBR 1배 이하 밸류업 공시 의무화"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사주 처분,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배 이하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연동하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설비투자가 큰 국내 제조업 특성상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속세와 연동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과하게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삼성·닉스, 미국 매출만 100조"...메모리 반도체 가격 1Q도 2배

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용 D램의 평균 계약(고정거래) 가격은 전분기보다 110~115% 상승했다. 직전분기 상승률(38~43%)보다 인상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AI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메모리 시장의 큰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SSS)의 지난해 매출은 31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소재 법인 대상 매출도 19조136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역시 AI 서버와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AI 칩(ASIC) 개발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맥쿼리가 301조원, 모건스탠리가 290조원, 씨티가 251조원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맥쿼리 272조원, 모건스탠리 179조원, 씨티 190조원이다. 국내·외 증권사 모두 내년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주: 티엘비,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씨키트, 제주반도체, 쓰리에이로직스, 에이팩트,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엑시콘, 티에프이, 센서뷰, ISC, 오킨스전자**

젠슨황·최태원 美 심장부서 재회...HBM 판 키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황 CEO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되는 '베라 루빈' 플랫폼의 개발 상황과 내년에 판매되는 베라 루빈 울트라 AI 가속기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HBM인 HBM4E가 들어간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재회를 통해 반도체 외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SK그룹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사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주: 한미반도체, 와이씨, 네오셈, 와이씨켐, 테크윙, 유니테스트, 디아이, 아이에스티이, 피엠티, 이오테크닉스, 켐트로스, 아이엠티, 제너셈, 워트, 엠디바이스, 미코, 마이크로투나노, 하나마이크론, 샘씨엔에스, 국전약품**

삼양엔씨켐, HBM 패키징용 PR 소재 올해 양산

업계에 따르면 삼양엔씨켐은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HBM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에 사용되는 PR용 고분자(폴리머)의 양산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차 협력사인 PR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고, 해당 협력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최종 고객사에 완성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다. 현재 PR 업체 2곳에 HBM 범프용 소재의 개발용 샘플을 공급해 품질(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 A사 맞춤형 제품은 올해 양산 시작이 목표다. B사용 제품은 내년 양산할 계획이다.

韓 유조선 7척 간헐...반도체 헬륨 수급도 비상

선박 일정이 지연되면 반도체 단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계는 헬륨의 90%를 카타르에서 조달하고 있다. 헬륨은 노광장비 냉각, 웨이퍼 누설 테스트 등에 쓰이는 반도체 필수 소재다. 중동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 사례다. 김 의원은 "UAE를 중심으로 향후 10여 년 내에 7~8기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수요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 **관련주: 원익머트리얼즈, 태경케미컬, 풍국주정, 케이씨, 에어레인**

[자동차]

[단독] 현대차 자율주행, 엔비디아 플랫폼 올라탄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첨단차량플랫폼(AVP)본부장(사장·사진) 겸 포티투닷 대표가 "현대차 AVP본부와 포티투닷, 모셔널의 자율주행 센서를 엔비디아 하이퍼리온10 센서 스위트(suite)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엔비디아 출신인 박 사장이 직접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 간 밀월 관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어 박 사장은 자율주행 AI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사업자(MSP)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버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하면 장기적인 운송 데이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주: 케이엔에스, 아우토크립트, MDS테크, 세코닉스,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페스카로, 오토앤, 엔비알모션**

[이차전지]

LG엔솔, 테슬라 물량서 LG화학 양극재 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롱레인지와 사이버트럭,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엘앤에프의 울트라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는 중고가 자동차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배터리를 울트라하이니켈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저가 모델에는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테슬라가 울트라 하이니켈을 전격 도입하기로 한 이유다. 테슬라에 이 제품을 납품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울트라 하이니켈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엘앤에프뿐이어서 모기업인 LG화학 제품을 배제했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양극재 납품 기업 타이틀을 되찾을 방침이다.

에이프로, 테슬라용 각형 배터리 장비 낙점

[CO2 / 전력 / 에너지]

SK 투자 테라파워, 美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

SK(034730)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미 당국이 SMR 등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NRC의 승인으로 미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에서 상업용 원전이 신규 건설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테라파워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SMR 건설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034020)는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와 핵심 기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며 와이오밍주 SMR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HD현대(267250) 역시 테라파워의 첫 SMR 플랜트의 원자로 용기를 제작하는 등 핵심 파트너를 맡고 있다.

태웅, SMR에 이어 체코 진출로 미래 원전 신호탄 쏘다

[AI / 로봇]

'IPO 임박' 오픈AI, 매출 250억 달러 돌파...'챗GPT' 3년 만에 빅테크 반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은 올해 2월 말 기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말 약 214억 달러(약 28조원)에서 약 17% 증가한 규모다. 연환산 매출은 특정 시점의 매출 흐름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로 환산한 지표다.

이번 매출 규모는 AI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빅테크 수준의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 출시 당시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기업용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매출 기업으로 성장했다.시장에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IPO 준비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미국 로펌 쿠리(Cooley)와 왁텔(Wachtell)을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장 시 기업가치는 최대 1조 달러(약 133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IT / 신기술]

메모리 가격 급등에..."올해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7.3%↓"

[BIO / 의료AI]

위고비 특허 만료 스타트, 올해 복제약 잇따른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 특허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속속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인도 기업이 위고비 복제약 개발을 위한 최종 허가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펩진과 삼천당제약도 특허 만료에 대비해 관련 복제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 이달 말 중국과 인도, 캐나다 등에서 만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내 터키와 브라질 등으로 특허 만료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2028년, 미국 2032년, 유럽연합(EU)·일본 2033년 등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91억 덴마크크로네(약 18조원) 규모를 형성했던 위고비 시장이 복제약의 등장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단독] 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에크노글루타이드' 적응증 확대 착수출처 :

HK이노엔이 도입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에크노글루타이드(Ecnoglutide)'가 수면 무호흡증까지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며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Lilly Employer Connect platform launches with over fifteen independent program administrators offering tailored obesity coverage options to expand access to patients

릴리 고용주 연결 플랫폼이 15개 이상의 독립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함께 출범하여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비만 보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선 / 해운]

HD현대 "필리핀 조선소 글로벌 MRO 거점으로 육성" 청사진 제시

HD현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현지 사업 청사진을 그렸다. HD현대필리핀 조선소를 유지·보수·운영(MRO) 거점으로 키우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품 보관시설과 인력양성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로비에 LIG넥스원 가세, 자동차 대신 방산협력 중심 총력전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특하면 막히는 호르무즈, 대안은 북극항로

- **관련주: 한화오션, KCTC, 동방, HMM, 흥아해운, STX그린로지스, 팬오션, KSS해운, 대한해운, 티케이케미칼, 케이엘넷, 토탈소프트, 태웅로직스, 인터지스, 한솔로지스틱스, 현대글로벌비스**

[우주 / 항공]

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음 수순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다. 당장 스페이스X 가치만 놓고 보면 IPO 흥행에 이견을 달긴 어렵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50억달러,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약 80억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9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광대역 위성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위성 운영사다.

- **관련주: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 아주IB투자, 스피어, 에이치브이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틸지주, 컨텍, AP위성, 와이제이링크, 모델솔루션, 센서뷰, 나노팀, 솔루엠, LK삼양, 루미르, 이녹스첨단소재, 신세계 I&C, LG에너지솔루션, 성우**

[코인 / STO]

금 주춤할 때, 비트코인은 치솟았다... '디지털 금' 논쟁 재점화

암호화폐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쟁 충격이 암호화폐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글래스노드는 보고서에서 "시장은 위기 가격 반영 국면에서 벗어나, 포지셔닝(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격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조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의 저가 매수세도 힘을 보탤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에 약 6억80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표명한 것이 정책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독] 두나무·네이버 합병 좌초 위기...與 '지분 예외 규정' 열어주기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지분 상한을 넘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합병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IP/엔터]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양대 앱 마켓서 인기 1위

[국방 / 방산]

천궁-II 실전서 이란 미사일 90% 요격...K방산 '수주 잭팟' 청신호

최근 중동 충돌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군이 운용 중인 천궁-II가 이란 측 미사일 요격 작전에 투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II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쟁에서 천궁-II가 실전 능력을 입증하면서 중동 지역 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궁-II는 2022년 UAE(약 4조 1000억 원)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4조 3000억 원), 2024년 이라크(3조 7000억 원)가 잇따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수요를 입증했다.

"천궁-II 더 빨리 달라"...UAE, 조기 공급 요청

UAE는 이란의 공격 이후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천궁-II 포대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급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 국가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군사 충돌이 격화한 중동 지역으로 장비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다.

- **관련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앤씨솔루션,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퍼스텍, 한일단조, 코스테크놀로지, RF시스템즈, 삼현**

[M&A / 주요 공시]

IMM PE, 대웅그룹 계열 시지바이오 인수한다...6000억 안팎

[단독] 토스, 미국 증시 상장 뒤 국내 상장도 추진한다

리벨리온, 코스닥 대신 코스피 IPO에 무게

< 전일 시장 주도 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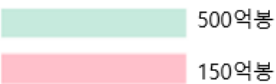
'전일 시장 주도 종목'은 거래일 기준 전(前)일 일어난 주요 종목과 그에 따른 이벤트를 다룬 콘텐츠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것은 주식의 시작입니다.

해당 종목을 오르게 한 이슈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종목이 상폐되기 전날까지도 종목을 오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차트가 좋을 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 있는 경우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시세를 주게 됩니다.



분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메모
< 반 / 디플 >						
신	삼성전자	191,600	11.27	52,924,583	263,62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100% 이상 확정
신	SK하이닉스	941,000	10.84	6,401,726	155,467	미-이란 물밑 접촉에 미 증시 상승 마감,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퇴출 공식화 등 반도체주 지수 상승 견인
신	테크윙	66,300	30.00	10,211,541	634,222	SK하이닉스향 HBM 검사장비 '큐브 프로브' 최종 퀄 테스트 통과 및 본격 납품
플	에이팩트	8,720	29.96	2,855,892	24,209	엔비디아향 차세대 메모리 모듈 'SOCAMM2' 테스트 양산 시작 및 실적 성장 가시화
신	유니테스트	19,600	28.10	1,332,885	25,845	SK하이닉스 HBM4용 번인 테스트 양산 검증 완료, 공급량 진입
신	디마이	33,800	24.72	659,670	21,606	차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HBM 테스트 장비 SK하이닉스 1순위 공급사
신	혹시론	30,400	24.08	792,241	23,564	삼성전자와 302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신	티씨케이	245,000	22.81	231,652	54,824	eSSD 및 9세대 낸드용 SiC 포커싱링 수요 폭증과 중국향 신규 고객 확보로 목표가 상향
신	하나머티리얼즈	66,100	22.63	567,181	37,085	선단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부품 교체주기 축소 등, 2027년까지 증익 사이클 전망 및 최대 실적 기대
< 중동전쟁 / 원자재 >						
신	한화시스템	150,800	30.00	8,178,416	153,495	UAE의 천궁-II 추가 구매 긴급 요청 및 실전 요격 성능 입증
신	LI텍스원	763,000	23.26	2,017,202	476,875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II, 미국 패트리엇 보완할 핵심 방공 체계로 부상하며 목표가 상향
신	RFHIC	67,200	17.89	822,357	54,223	LI텍스원을 통해 천궁2에 레이더용 전력증폭기 공급
신	한국ANKOR유전	470	29.83	207,359,409	89,61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유가 상승세 지속
플	중구석유	32,700	10.10	52,022,495	644,916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및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제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등, 직영주요소 운영
신	S-Oil	134,700	6.48	5,004,431	637,060	정유, 석유화학, 운할기유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신	알렉	56,000	27.27	397,943	21,233	알루미늄 가격 2년내 최고치 경신 및 고전도 알루미늄 소재의 구리 대체 효과 부각
신	삼아알미늄	30,350	22.87	402,122	11,941	알루미늄 가격 2년내 최고치 경신 및 고전도 알루미늄 소재의 구리 대체 효과 부각
< 바이오 >						
플	현대바이오	15,310	29.97	2,798,282	41,540	'페니트리움' 기반 난치암 시장 공략을 위한 사명 변경 추진 및 글로벌 기술이전 본격화
플	현대ADM	13,750	29.96	5,448,407	72,450	'페니트리움' 기반 난치암 시장 공략을 위한 사명 변경 추진 및 글로벌 기술이전 본격화
신	젠큐릭스	5,040	22.63	11,086,299	54,343	현대ADM바이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암 전이 및 내성 원인인 기질 장벽 기전 규명에 기여
신	알지노믹스	151,100	29.92	498,376	72,664	세계 3대 암학회 AACR에서 항암 유전자치료제 임상 결과 구두 발표 연사 선정
플	큐리언트	34,550	29.89	726,270	24,142	미 FDA 우선심사권(PRV) 거래 급등에 따른 자산 가치 및 수혜 기대
신	에임드바이오	62,800	22.42	1,910,654	116,748	코스닥150 지수 특례 편입 결정, ADC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및 올해 2건 이상의 글로벌 임상 진입 추진
< 현대차 / 로봇 >						
신	현대차	548,000	9.38	2,663,493	491,067	새만금 9조원 투자, 피지컬 시 실험 단계 진입 및 글로벌 피지컬시 업체중 가장 저평가 분석
신	현대모비스	432,000	8.27	474,443	205,132	휴대노이드 마들라스 핵심 부품 추가 수주 기대
신	현대무브스	30,950	21.37	1,804,899	54,922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글로벌 태이어 기업향 수주 임박
< 개별주 >						
신	두산에너빌리티	90,500	12.28	6,781,072	618,458	여야 발미사절단, 23일 미국 의회를 찾아 원전 투자 제한 및 테라파워의 미국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 획득
플	우리기술	16,580	29.94	22,915,401	372,930	SMR용 MMIS 핵심 기술 국산화 및 국책과제 수행
신	태웅	34,550	27.26	454,910	15,114	SMR 주기기 핵심 소재 단조 능력 및 캐나디안 SMR 프로젝트에 원전용 단조 부품 수주 이력
신	미래에셋생명	13,570	29.96	291,480	3,955	보유 자산주의 93%에 달하는 6296만주 전량 소각
신	헥토파이브셀	33,000	29.92	2,869,891	89,309	'서클'의 머닝 서프라이즈, 서클(USDC) 기반 글로벌 실시간 청산 인프라 구축 완료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기대
신	다날	7,580	17.70	7,594,224	58,737	스테이블코인법 확정 임박 및 다날, 서클·바이낸스 협업 외국인 결제 서비스 4월 출시
신	아이티셀글로벌	60,800	26.93	719,902	40,870	JPYCS와 한일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 금 가격 상승 및 Web3 사업 호조로 지난해 영업이익 378% 증가
신	그린광학	41,250	21.68	1,153,191	45,883	미사일 시커용 적외선 핵심 소재 ZnS 국내 유일 생산, LI텍스원 등에 납품, 인도 우주·방산기업과 MOU 체결
신	에코프로	160,800	20.18	4,321,845	692,536	11일, 인터배터리에서 로봇용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 등 공개
신	대주전자재료	96,400	24.07	660,642	63,262	스페이스X 관계자 방문, 태양광 관련 제품 공급 및 샘플 테스트 논의

(거래대금 단위: 억)

< 반 / 디플 >

● **삼성전자 (+11.27%)(187390) / SK하이닉스 (+10.84%)(98910) / 반도체 소부장 등**

(26.03.04)"中 반도체 뼈라" 美정부 퇴출 공식화에...삼성·SK '환호'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안정적...주가 제자리 찾아갈

최태원, 엔비디아 GTC 간다...젠슨 황과 HBM 협력 논의할 듯

● **테크윙 (+30.00%)(6342)**

테크윙, SK하이닉스 HBM 큐브 프로브 최종 퀄 테스트 통과

테크윙은 SK하이닉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전용 검사장비 '큐브 프로버(Cube Prober)'의 최종 퀄테스트(Qualification Test)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테크윙은 앞서 성능 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퀄테스트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하면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는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 SK하이닉스 퀄테스트 통과로 글로벌 HBM 제조사 두 곳에 장비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미국 마이크론에도 퀄테스트를 목적으로 장비가 공급돼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올해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팩트 (+29.96%)(241)

(26.02.16)에이팩트, 후공정 회복 신호탄...엔비디아향 테스트 확대 승부수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초소형 압축 탈부착 메모리 모듈 'SOCAMM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한 가운데, 에이팩트는 해당 모듈 테스트 장비를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투자 재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234억원 규모의 신주인수원부사채(BW) 자금으로 충당한다. 에이팩트 측은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차세대 D램 모듈인 SOCAMM2 테스트 양산도 지난달 시작해 고객사의 엔비디아향 샘플 공급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테스트 (+28.10%)(258) / 디아이 (+24.72%)(216)

유니테스트, SK하이닉스 HBM4용 '번인 테스트' 양산 검증 완료

유니테스트는 지난달 SK하이닉스와 HBM4용 번인 테스트 양산 퀄(품질) 테스트를 완료했다. 번인 테스트는 반도체에 극한의 고온·고전압 환경을 가하고, 이후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장비다. HBM4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 상승, D램 적층 수 증가해 이에 대응하는 신규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국내 복수의 후공정 장비기업들로부터 HBM4용 번인 테스트 검증을 진행해 왔다. 유니테스트의 경우 지난해 데모 장비로 성능 평가를 통과해, 지난달 양산용 퀄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HBM 공급망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SK하이닉스 HBM4용 번인 테스트 공급망은 또 다른 장비기업인 디아이가 자회사 디지털프론티어를 통해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진입한 바 있다. 유니테스트는 세컨 벤더의 지위다.

●엑시콘 (+24.08%)(235)

(26.03.04)엑시콘, 삼성전자와 302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엑시콘이 삼성전자와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CLT 및 SSD Tester 공급을 포함하며, 계약금액은 302억원이다.

●티씨케이 (+22.81%)(548)

키움증권 "티씨케이, AI수혜에 따른 깜짝실적 예상...목표가↑"

박유익 연구원은 올해 인공지능(AI)을 위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티씨케이 제품 판매량 급증이 예상된다고 하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 분기 대비 59% 늘어난 294억원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eSSD 수요가 늘어나고 고객사들이 9세대 낸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하며 실리콘카바이드(SiC) 포커스링의 수요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BM4e(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16단 제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코퍼 본딩(HCB) 공정에 티씨케이의 SiC 포커스링이 적용됨에 따라 AI 산업의 큰 수혜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티씨케이가 올해 1분기에 중국 장비 업체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해 중장기적 실적 성장 동력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나머티리얼즈 (+22.63%)(370)

대신증권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공급 부족 속 최대 실적 기대"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경우, 증익 사이클이 2027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영업 환경의 개선 속, 최대 실적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실적 또한 주요 국내 고객사의 실리콘 부품 재고 축적 수요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선단공정 비중 확대 속, 부품 교체주기 축소가 전망된다"며 "2026년은 DRAM 선단공정 투자가, 2027년은 NAND V10 투자가 주요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중동전쟁 / 원자재 >

●한화시스템 (+30.00%)(23990) / LIG넥스원 (+23.26%)(27430) / RFHIC (+17.89%)(542)

[단독] 실전 효과 봤나...UAE, 천궁-II 추가 구매 긴급 요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거 발사하면서 UAE 전역에 위협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UAE 정부가 천궁-II의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UAE 측이 신규 생산 물량뿐 아니라 한국군이 운용 중인 천궁-II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며 "현재 방산업계와 관계 부처가 생산 일정과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UAE는 2022년 약 35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규모 계약을 통해 천궁-II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실전 상황에서 높은 요격 성능이 확인되면서 추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 **한국ANKOR유전 (+29.83%)(895) / 흥구석유 (+10.10%)(16450) / S-Oil (+6.48%)(6370)**

석유 판매가격 '상한 카드' 꺼낸 정부..."모든 행정조치 활용할 것"

국제유가, 거친 랠리 중단하고 일단 숨고르기...보합권 거래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렀던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갈등 격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여파로 2거래일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뛴 바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도 배럴당 74.66달러로, 전장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일단 중단했다.

● **알멕 (+27.27%)(212) / 삼아알미늄 (+22.87%)(119)**

호르무즈 봉쇄에 알루미늄 가격도 뛰어...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26.03.04)알멕, 우주항공·전력 인프라 신사업 '가속'..."올해 영업이익 116% 급증 전망"

알멕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Top-Tier) 우주항공 업체와 협력사 등록을 완료하고 샘플 물량 출하를 시작했다. 오는 1~2분기 중 최종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과 공급망 이슈로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동사의 고전도 알루미늄 소재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동사는 구리 대비 3~4배 저렴하면서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적용 범위를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히고 있다"고 짚었다.

< BIO >

● **현대바이오 (+29.97%)(415), 현대ADM (+29.96%)(724) / 젠큐릭스 (+22.63%)(543)**

(26.02.20)현대ADM→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 사명 변경...3월 6일 주총서 확정

(26.02.26)[바이오 포럼] 현대바이오 "'제프티'로 미래 팬데믹도 대비"

현대바이오, 땀기열 치료제 임상 2·3상 진입 초읽기...'베트남 보건 실세 총출동'

● **알지노믹스 (+29.92%)(726)**

알지노믹스, 美AACR서 항암 유전자치료제 임상 중간결과 구두 발표

알지노믹스는 오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구두 발표에 나선다고 밝혔다. AACR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며 연구기관 및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다. 알지노믹스는 항암 유전자치료제 RZ-001 간암 임상 중간결과의 구두 발표 연사로 선정됐다. RNA 편집·교정 치료제의 최초 임상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데이터를 발표하게 된다.

● **큐리언트 (+29.89%)(241)**

'황금티켓 PRV' 손에 쥔 큐리언트, 치솟는 가격에 '방긋'

큐리언트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선심사권(PRV)' 거래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주력 파이프라인인 '텔라세벡'(Telacebec, Q203)의 임상 순항으로 대규모 자산 확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V는 미국 FDA가 신약개발이 까다롭거나 수익성이 낮아 방치되기 쉬운 특정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신약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신약개발 기업들에게는 '황금티켓'으로 불린다. PRV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기업들에게 양도(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1억달러에서 1억5000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던 PRV 가격은 최근 2억500만달러(약 3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PRV 공급이 감소해 2026년 이후로는 거의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에임드바이오 (+22.42%)(1167)

에임드바이오, 'AMB302' 기술이전 선급금 '113억원'... 실제 가치는?

허남구 에임드바이오 대표 "ADC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올해 에임드바이오는 추가 기술수출과 함께 두 건 이상의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헤이븐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베링거인겔하임에 이전한 파이프라인은 상반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후 하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 중인 AMB303 역시 연내 IND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허 대표는 "바이오헤이븐이 진행 중인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소 두 건 이상의 임상 진입과 함께 마일스톤 유입도 예상하고 있다"며 "AMB303은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 등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 로봇 >

●현대차 (+9.38%)(33040), 현대모비스 (+8.27%)(2051), 현대무백스 (+21.37%)(549)

현대무백스, AW 2026서 'AMR 군집 주행' 선보여 화제

현대모비스, 아틀라스 핵심부품 5종 추가수주 가능성...AS 공급도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에 탑재되는 액추에이터(구동장치) 외에도 핵심부품 5종에 대한 양산을 그룹사 현대모비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품은 그리퍼(로봇 손), 퍼셉션(지각) 모듈, 헤드 모듈, 제어기, 배터리팩 등 5종으로 모두 아틀라스의 핵심부품이다. 액추에이터는 일찍이 현대모비스가 공급자로 확정됐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 비(非)계열사에 부품 양산을 맡길 경우 로봇틱스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대모비스에 양산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연구개발(R&D)을 담당하고 현대모비스가 이를 대량 양산 제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 개별주 >

●두산에너지빌리티 (+12.28%)(6183) / 우리기술 (+29.94%)(3729) / 태웅 (+27.26%)(151)

(26.03.04)[단독] 여야, 美의회에 원전 투자 제안한다

(26.03.0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승인 2028년 목표...본격 심사 착수

SK 투자 테라파워, 美 첫 상업용 SMR 승인...차세대 원전 가속화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 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이번 승인으로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 (+29.98%)(39)

(26.03.04)미래에셋생명, 자사주 93% 소각..."주주가치 제고"

미래에셋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470만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등 전량(6296만주)을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약 9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의 총 발행주식 수는 기존보다 약 31.8% 줄어들게 된다.

●핵토파이낸셜 (+29.92%)(893) / 다날 (+17.70%)(587)

코스피 급등...與 "스테이블코인법 단일안 곧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증시 폭락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날·서클·바이낸스페이, 협업 서비스 4월 본격 론칭...외국인 전용 '크립토 결제' 시대 연다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자산 결제 플랫폼 '바이낸스페이(Binance Pay)',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손잡고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 환전 과정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하는 방식이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했다.

●아이티센글로벌 (+26.93%)(408)

아이티센글로벌, 작년 영업이익 2800억 '어닝서프라이즈'

아이티센글로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8조 870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9% 성장한 수치로, 한국금거래소를 비롯한 웹3(Web3) 사업 부문과 아이티센씨티에스, 아이티센엔텍 등 IT서비스 부문의 고른 성장이 견인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8% 증가한 2800억 원, 당기순이익은 449% 증가한 1980억원을 기록하며 외형과 내실을 모두 잡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회사는 한국금거래소의 유통 물류 역량에 그룹사의 IT-리스크 관리 기술을 결합, 글로벌 금 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 금 품귀와 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글로벌 정련소와의 직수입 네트워크, 재고-헤지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린광학 (+21.68%)(458)

(26.03.03)그린광학, 美·이스라엘·이란 군사 긴장 고조...'미사일용 적외선 핵심소재 ZnS' 국내 유일 생산 조명 그린광학, 인도 방산기업 파라스와 우주방산 협력...ISRO 위성사업 진출 추진

그린광학은 인도의 우주·방산 상장사 '파라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Paras Defence and Space Technologies)'와 '한·인도 우주방산 빅 비즈(Big Biz)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필수 전제 조건인 '현지 생산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파라스와 대규모 위성 탑재체(Payload) 공동 수주를 위한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린광학은 최근 위성 탑재체 전용 공장을 신규 매입해 리모델링 중이며, 기존 1.5m급을 넘어선 2m급 초정밀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라인설치도 진행하고 있으며, 2m급 대형미러를 제작할 수 있는 초정밀 신규 장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에코프로 (+20.18%)(6925)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참가...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 공개

에코프로는 이달 11~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여해 'Perfect Chain, Connected Value'를 주제로 총 4개의 전시 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기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등 로봇 시대를 선도할 에코프로의 차별화한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

●대주전자재료 (+24.07%)(632)

대주전자재료, 스페이스X 방문에 태양광 사업 기대감(유료기사)

대주전자재료의 스페이스X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 관계자가 한국에 직접 방문해 샘플을 요청하는 등 계약 체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조만간 태양광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전자재료에 스페이스X 관계자들이 방문해 태양광 관련 제품공급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장 후 시간 외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을 보면서 당일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단위: 억)

●LIG넥스원 (NXT +5.38%)(상한가) / 한일단조 (+9.95%)(15) / 퍼스텍 (+7.90%)(23) / 빅텍 (+5.00%)(26) / 코츠테크놀로지 (+4.66%)(1) / RF머트리얼즈 (+4.62%)(0.7)

K-방산의 위용..."'UAE배치' 천궁-Ⅱ 요격 성공률 96%"

UAE, 韓 정부에 소진 중인 '천궁-Ⅱ 요격미사일'이라도 조기 공급 요청...韓, 포대 조기 공급 요청엔 난색

UAE는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방공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천궁-Ⅱ 8개 포대를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을 체결한 나라에 공급해야 하는 예약 물량이 있는데다, 현재로선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중동 지역으로 포대를 이송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측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2022년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다.

●RFHIC (NXT +9.38%)

(26.03.04)중동전쟁 확대 우려 ... 방산·에너지주 목표가 경춤

RFHIC는 LIG넥스원을 통해 천궁-Ⅱ에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어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4일 RFHIC 목표주가를 기존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레퍼런스가 확보되면 추가 수주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서뷰 (+6.28%)(1)

센서뷰, LIG넥스원과 11억5200만원 규모 EJ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센서뷰, LIG넥스원과 12억2400만원 규모 CDDF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한화솔루션 (NXT +8.90%) / 대주전자재료 (NXT +4.78%)(상한가)

한화솔루션 주가 다시 불뿔나, '스페이스X 상장'에 미국 관세 반사수혜 기대감까지

KB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6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 재평가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장 시점이 고저이 아닌 시작일 것"이라며 "한화솔루션 등 앞으로 우주 산업 관련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KB증권은 "100GW/년 우주 태양광 시대가 오면 매출 38조 원, 영업이익 15조 2천억 원 규모 시장이 열린다"며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을 고려하면 태양광 선두 업체인 한화솔루션은 영업이익 2조5천억 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화솔루션 목표주가는 6만7천 원으로 제시했다.

●한미반도체 (NXT +6.04%) / 에프에스티 (NXT +7.39%) / 원익QnC (NXT +5.54%) / 두산테스나 (NXT +4.87%)

삼성 추격에 젠슨 황 손잡은 최태원...HBM 패권 전쟁 본격화

JP모건 "삼전·SK하닉 여전히 좋다...코스피 7500 전망"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6000포인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강세장 복귀와 개인 자금의 국내 회귀가 지속될 경우 최대 7500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상향 추세이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과열됐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조정 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며 부담도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천 업종으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자사주 소각·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지주회사와 보험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티엘비 (NXT +5.06%) / 심택 (NXT +3.61%)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주간 일정 >

3월 6일 금요일

미국) 2월 고용동향보고서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 상무장관 회담

산업통상부, 회토류 관련 기업 현장방문

재정경제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기후부, 태양광 협회·단체 간담회

JYP 글로벌 걸그룹 GIRLSET, 신곡 'Tweak' 발표

에스팀 신규상장

3월 7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 중남미 12국 정상회의

에스엠씨지, 5,504,000주(28%) 보호예수 해제

캐리, 2,313,402주(21%) 보호예수 해제

케이엔알시스템, 1,329,255주(12%) 보호예수 해제

3월 8일 일요일

미국) 서머타임 시행

3월 9일 월요일

국회 대미투자특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East-West Biopharma Summit 2026(~11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실시(~19일)

라온텍, 8,407,500주(28%) 보호예수 해제

오아, 1,902,223주(30%) 보호예수 해제

엑스비스 신규상장

3월 10일 화요일

노란봉투법 시행

TSMC 2월 매출

라운피플 추가상장(유상증자)

에어레인 무상증자 기준일

태영건설, 217,937주(-%) 보호예수 해제
페스카로, 812,631주(8%) 보호예수 해제

<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추가·수정된 일정

△AW 2026 / 03.04~06

휴머노이드 전면 배치...3월 4일 개막 AW 2026 로봇 산업 '무게중심 이동' 예고
현대차그룹, 차세대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 활용방안 내주 공개 [biz-플러스]

△East-West Biopharma Summit 2026 / 03.09~11

글로벌 빅파마·투자 '빅샷' 3월 서울 집결

△인터배터리 2026 / 03.11 ~ 13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 2026'서 로봇 배터리 승부

△엔비디아 GTC 2026 / 03.16~19

엔비디아 홈페이지: GTC 2026

엔비디아 'GTC 2026' 3월 16일 개막... 1나노 적용 AI 칩 '파인만' 공개 전망

▲방미사절단 대미투자 사업 제시 예정 / 03.23~29

"美에 K원전 건설하자" 대미투자 1호로 추진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사절단이 오는 23일 미국 의회를 찾아 대미투자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美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 03.31~04.02

백악관 "트럼프, 3월31일~4월2일 방중...시진핑과 회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TC본더 도입 확정 예정 / 03.中

[단독]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와 TC본더 공급 논의...HBM 후공정 공급망 다각화 착수
구체적인 도입 여부는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올릭스,비만 타겟 siRNA 원숭이 실험 데이터 발표 예정 / 03.中

올릭스 "차세대 비만약:CNS 전임상 가속...조기 기술이전도 가능"

"현재까지는 에로우 헤드의 ALK7 타겟 물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가 도출되고 있다"며 "오는 3월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서 1차 원숭이 데이터를, 오는 7월 오프라인 R&D 데이에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 / 04.17~22

알지노믹스, 항암 유전자치료제 임상 데이터 AACR 2026 구두 발표

△아르테미스2 발사 예정 / 04 中

NASA "3월 발사 불가"...아르테미스 2호 일정 변경

NASA는 3월 발사 가능 기간을 배제하고, 다음 발사 시점을 4월 초 이후로 검토 중이다.

< 투자주의종목 >

[단기과열 예고]

[단기과열] 한국석유(3/6) 인트론바이오(3/5)

[투자경고 예고] 한국석유

[투자경고] 흥구석유(3/6) 인트론바이오(3/6) KEC(3/3) 로지스몬(3/3) 아이엘(3/3) 젠큐릭스(2/27) TBH글로벌(2/27) 서울반도체(2/27) 나무기술(2/27) 비엘팜텍(2/27) 인벤티지랩(2/26) DSC인베스트먼트(2/25) 현대바이오(2/25) 광동제약(2/24) SGC에너지(2/23) 다원넥스뷰(2/23) 누리플렉스(2/20) 자화전자(2/20) 본시스템즈(2/20) 현대ADM(2/19)

[투자위험] 현대ADM 유투바이오

[매매거래정지 예고] KEC 젠큐릭스 누리플렉스 인벤티지랩

[매매거래정지]

< 차트상 관심주 >

[상승봉] 500 & 150억 봉

-(0일차) 테크윙 한화시스템 헥토파이낸셜 알지노믹스 한국ANKOR유전 대한광통신 태성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원익IPS 삼천당제약 아주IB투자 이오테크닉스 LIG넥스원 ISC 유진테크 티씨케이 젠큐릭스 피에스케이홀딩스 파두 RFHIC SK이노베이션 퍼스텍 흥구석유 중앙에너지 대성에너지 솔브레인 큐리언트 유니테스트 알멕 태웅 아이티센글로벌 디아이 KEC DB하이텍 인텔리안테크 피에스케이 NHN KCP 스맥 제우스 한탑

-(1일차) SKAI

-(2일차) 한일사료

[5~8일선]

[15일선]

[33~45선] 와이즈버즈 메디아나 루미르 대동기어 삼양바이오팜 삼미금속 유진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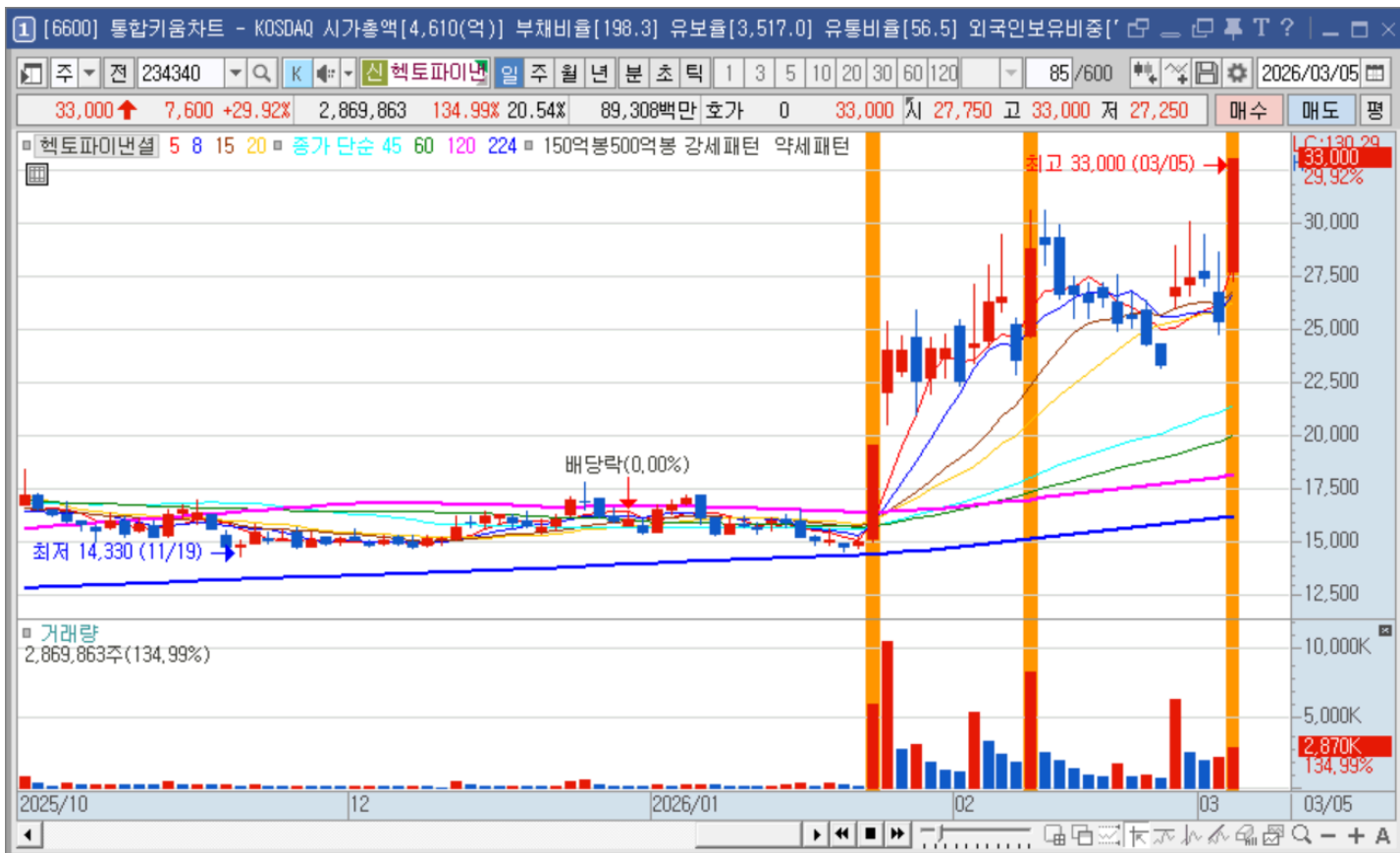
[120선] 동양고속 빛과전자 한라캐스트 KCTC 센서뷰 에스오에스랩

[바닥] 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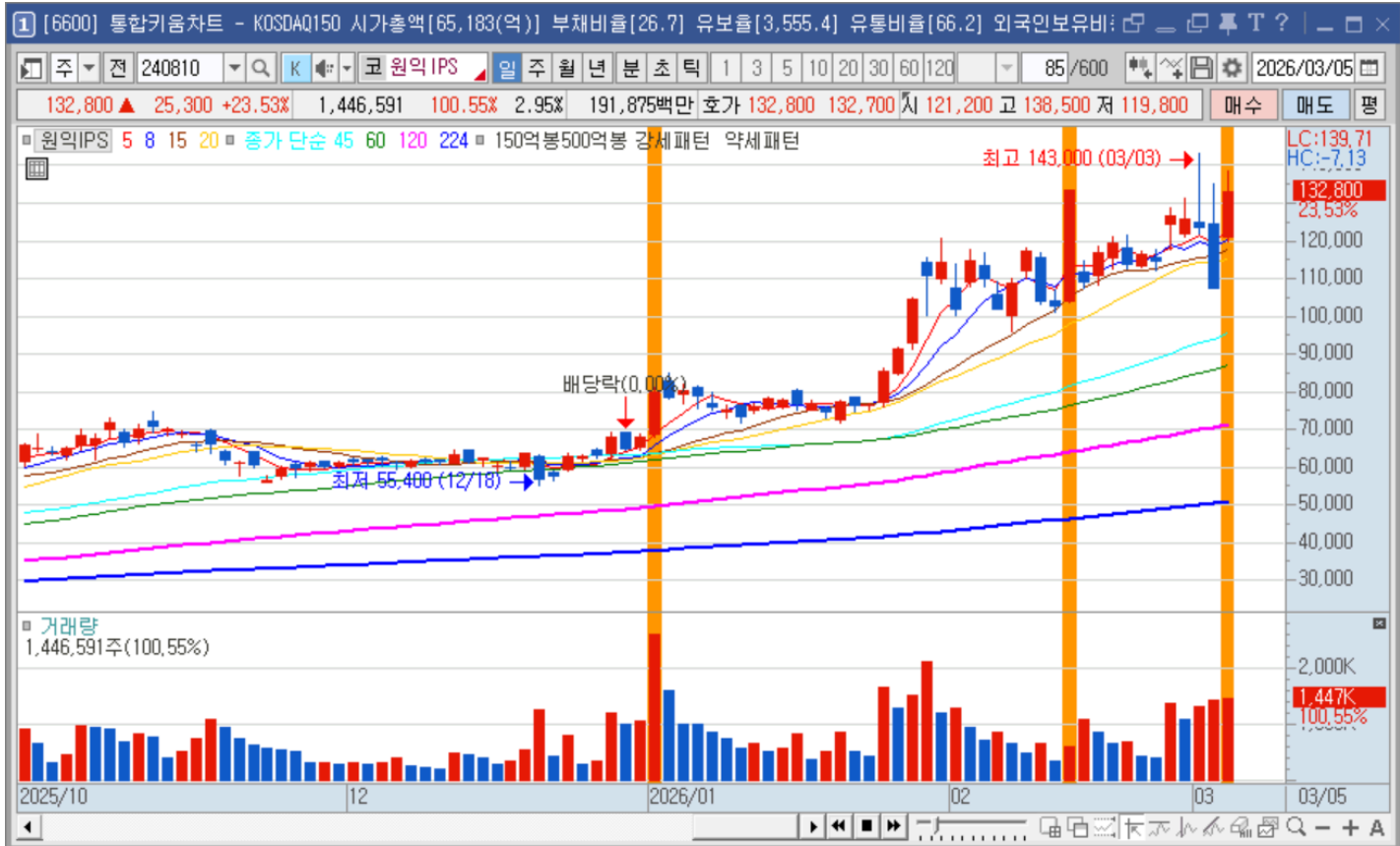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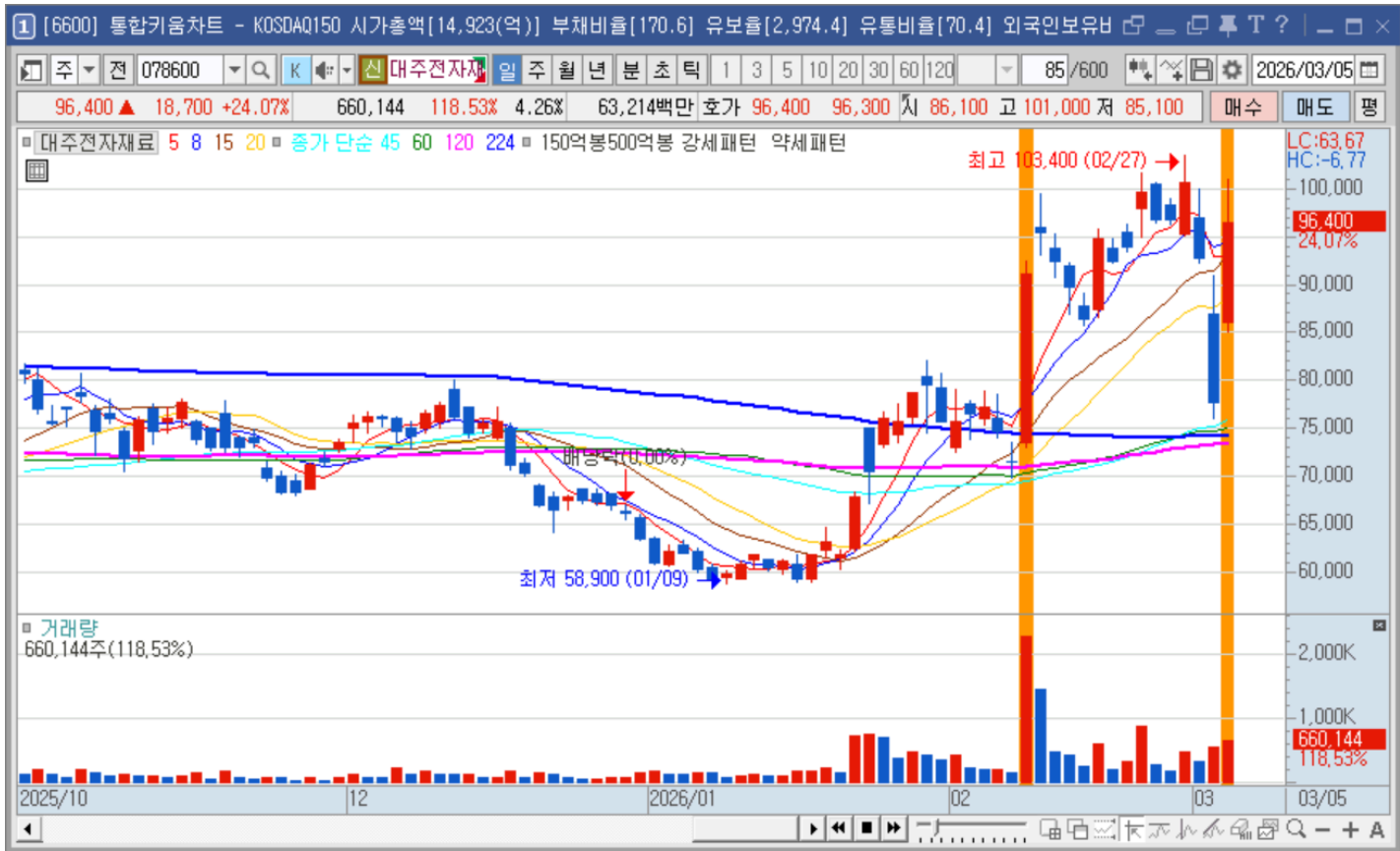
[급락] 유니캠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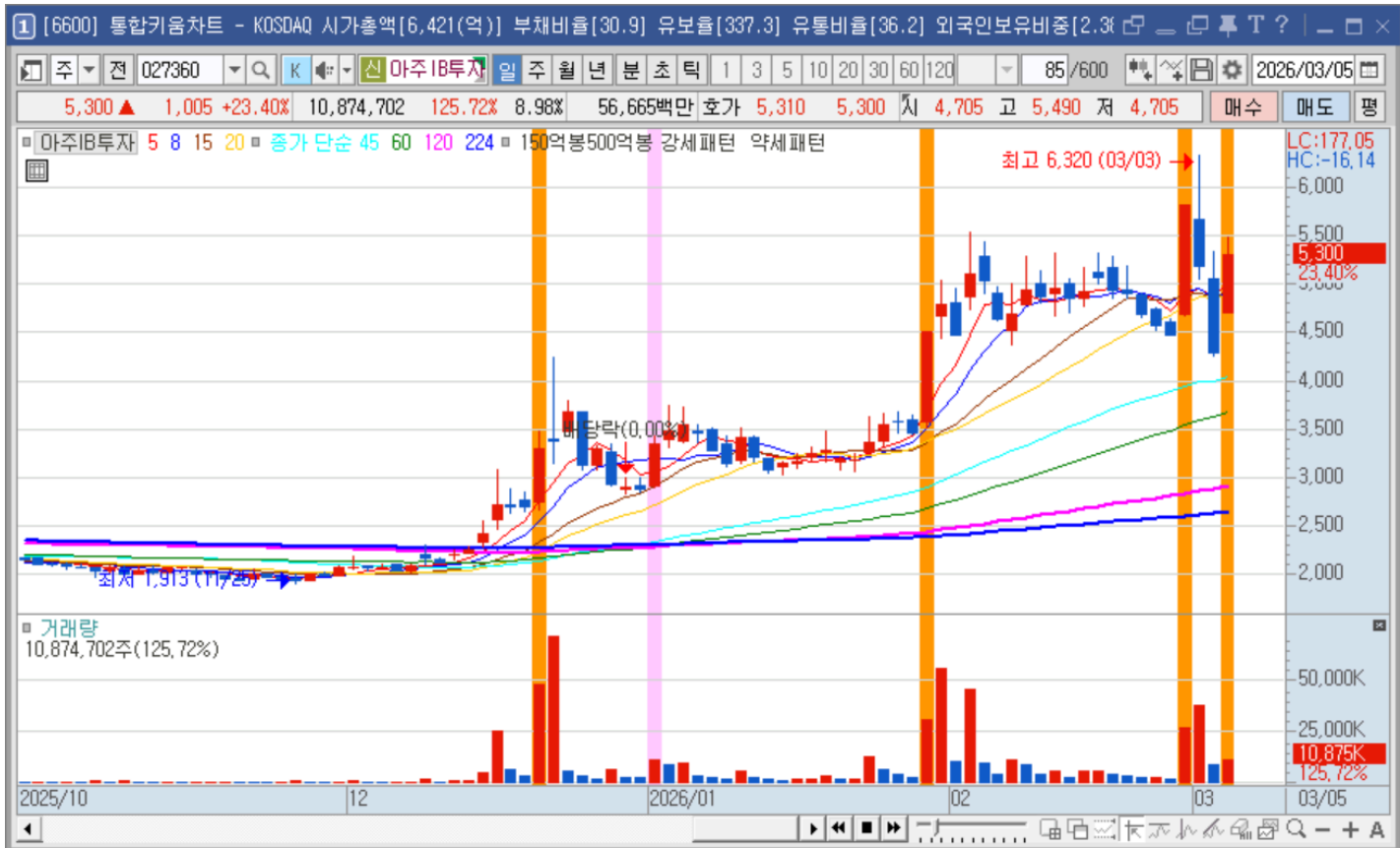
< 0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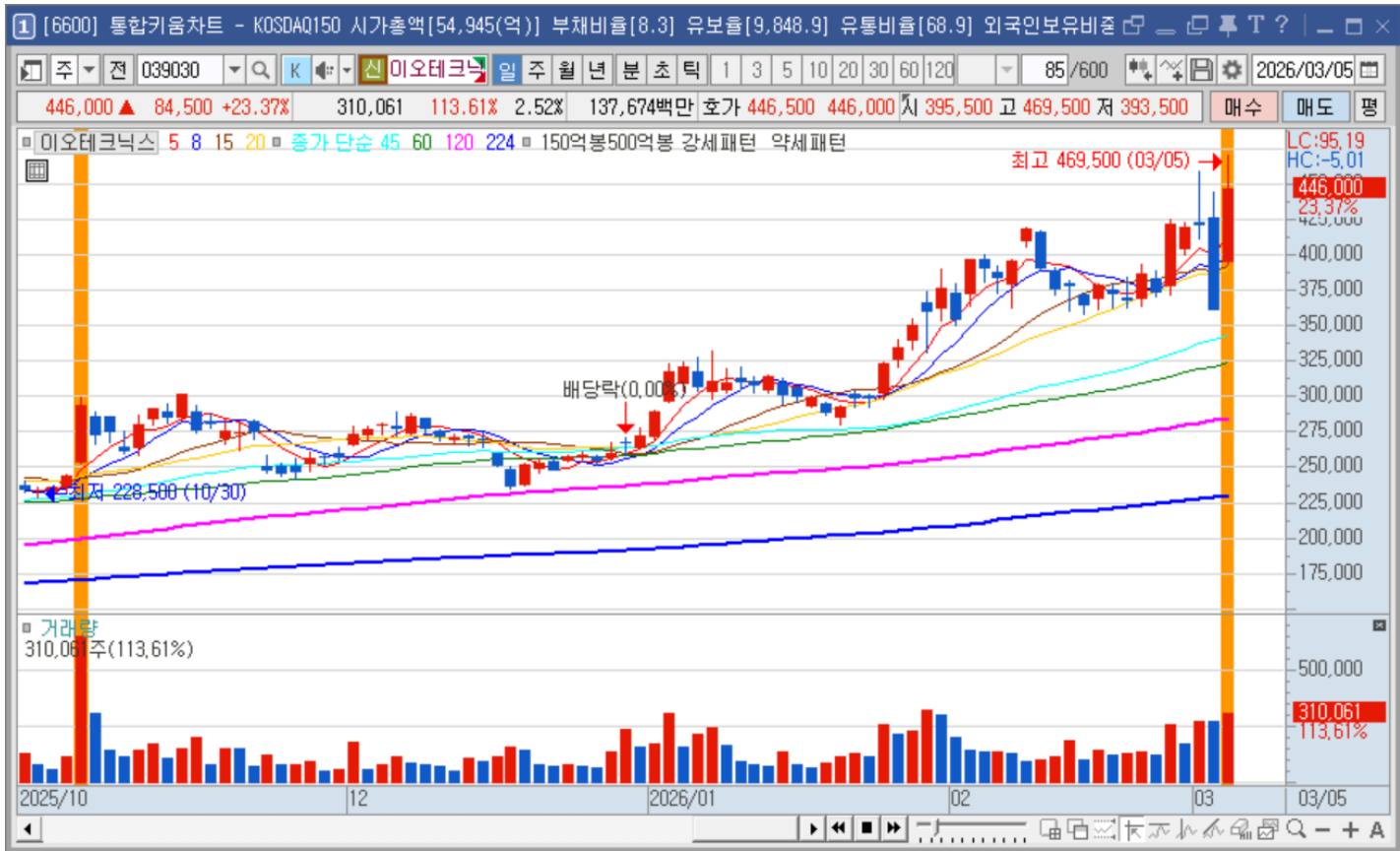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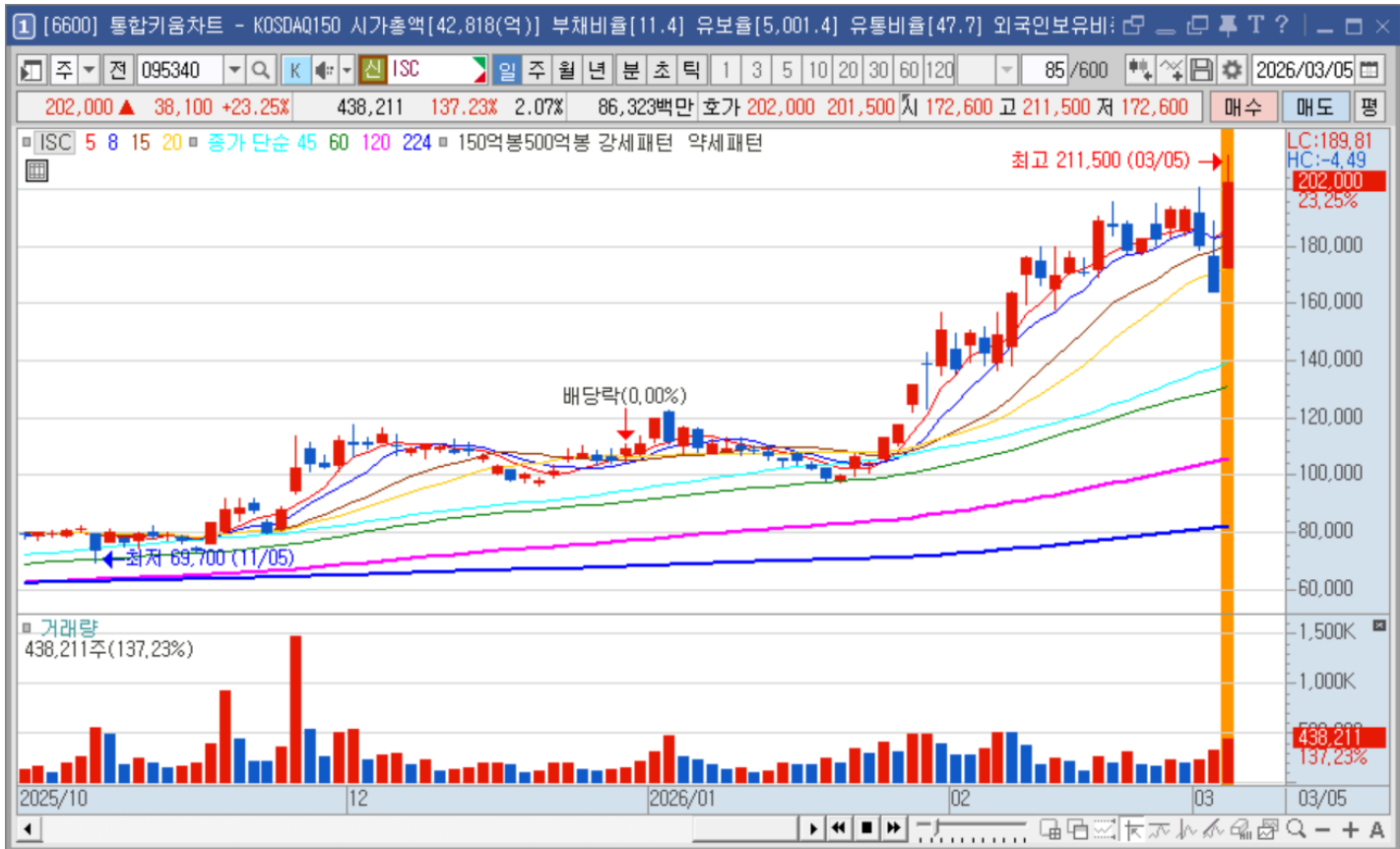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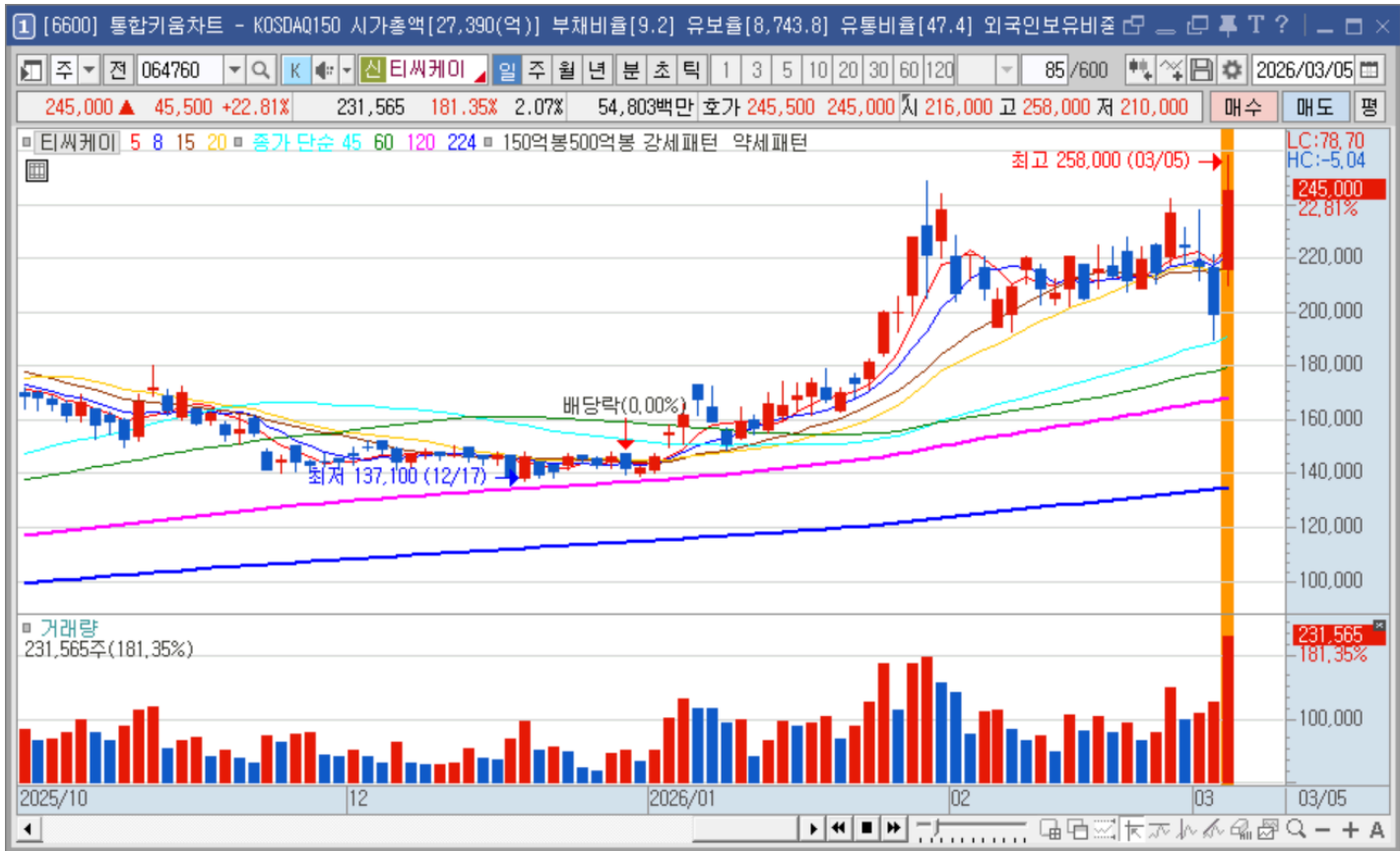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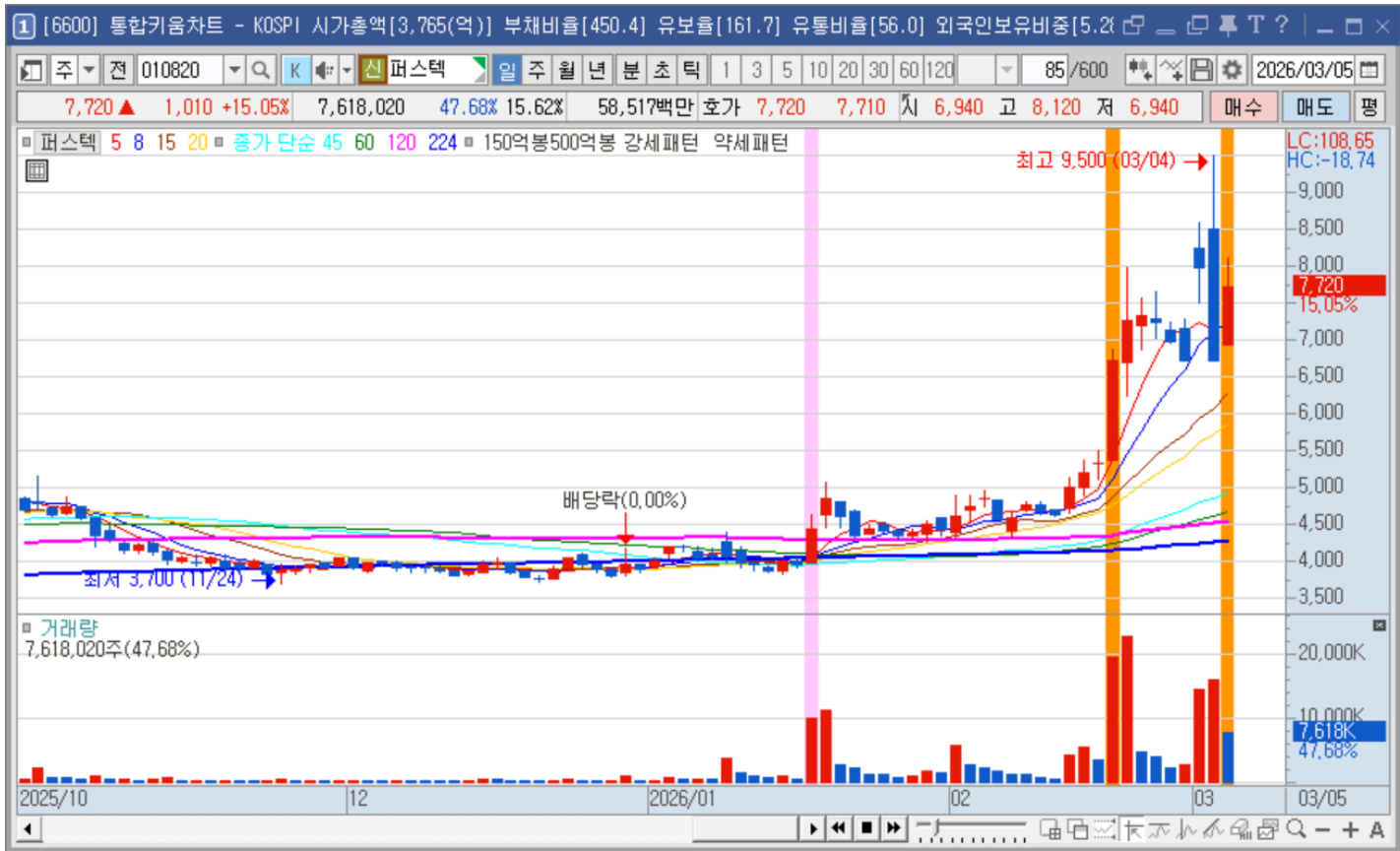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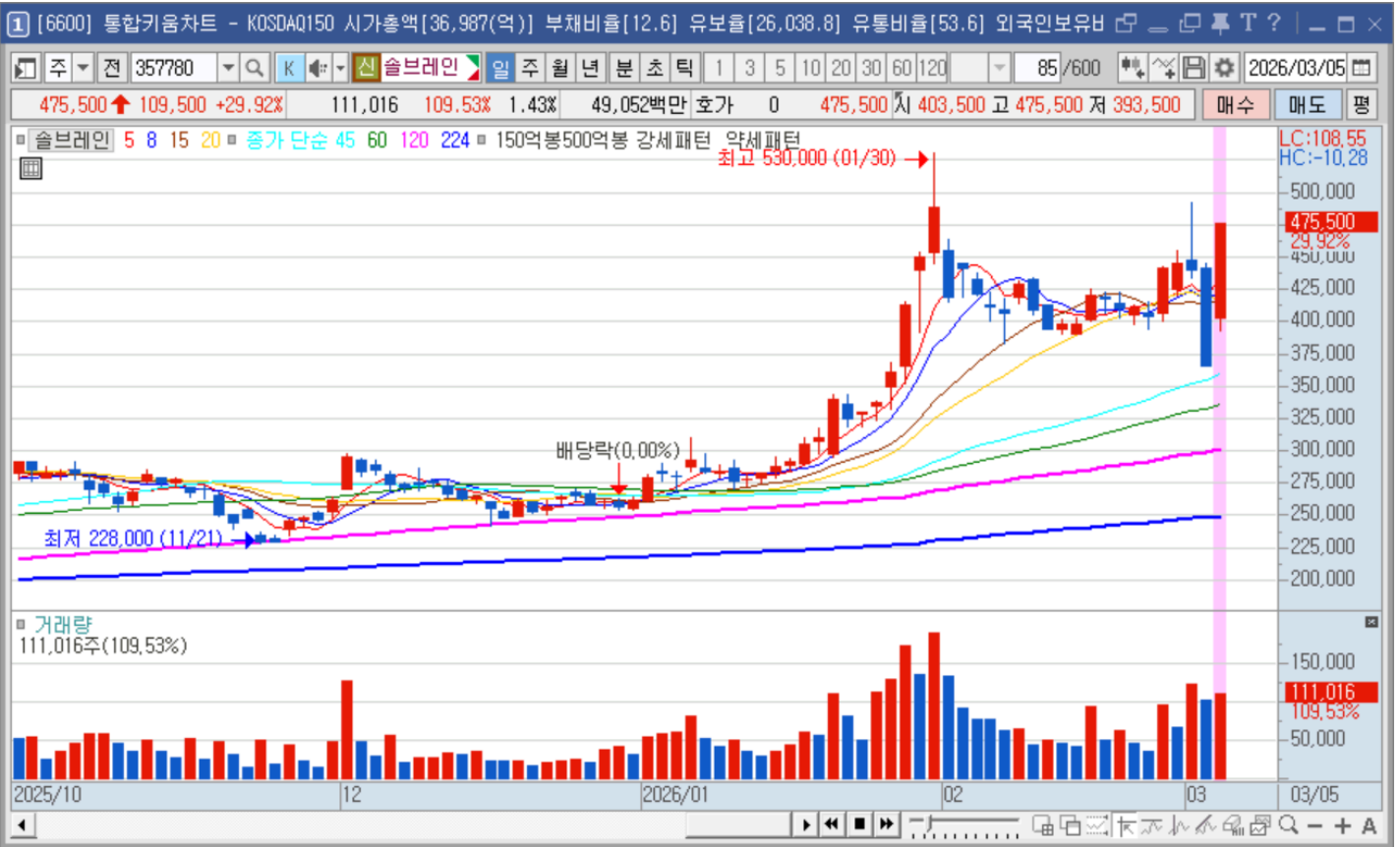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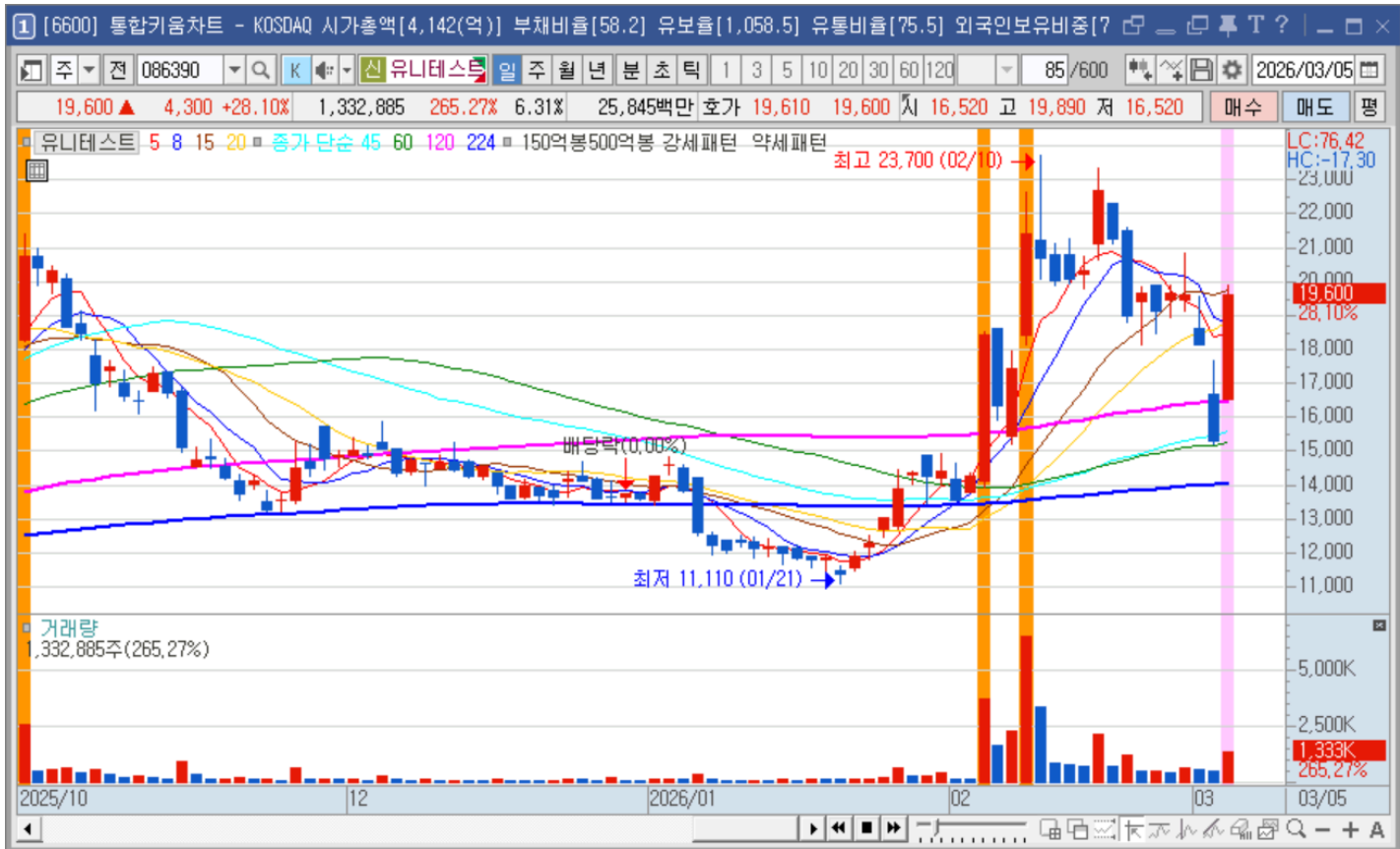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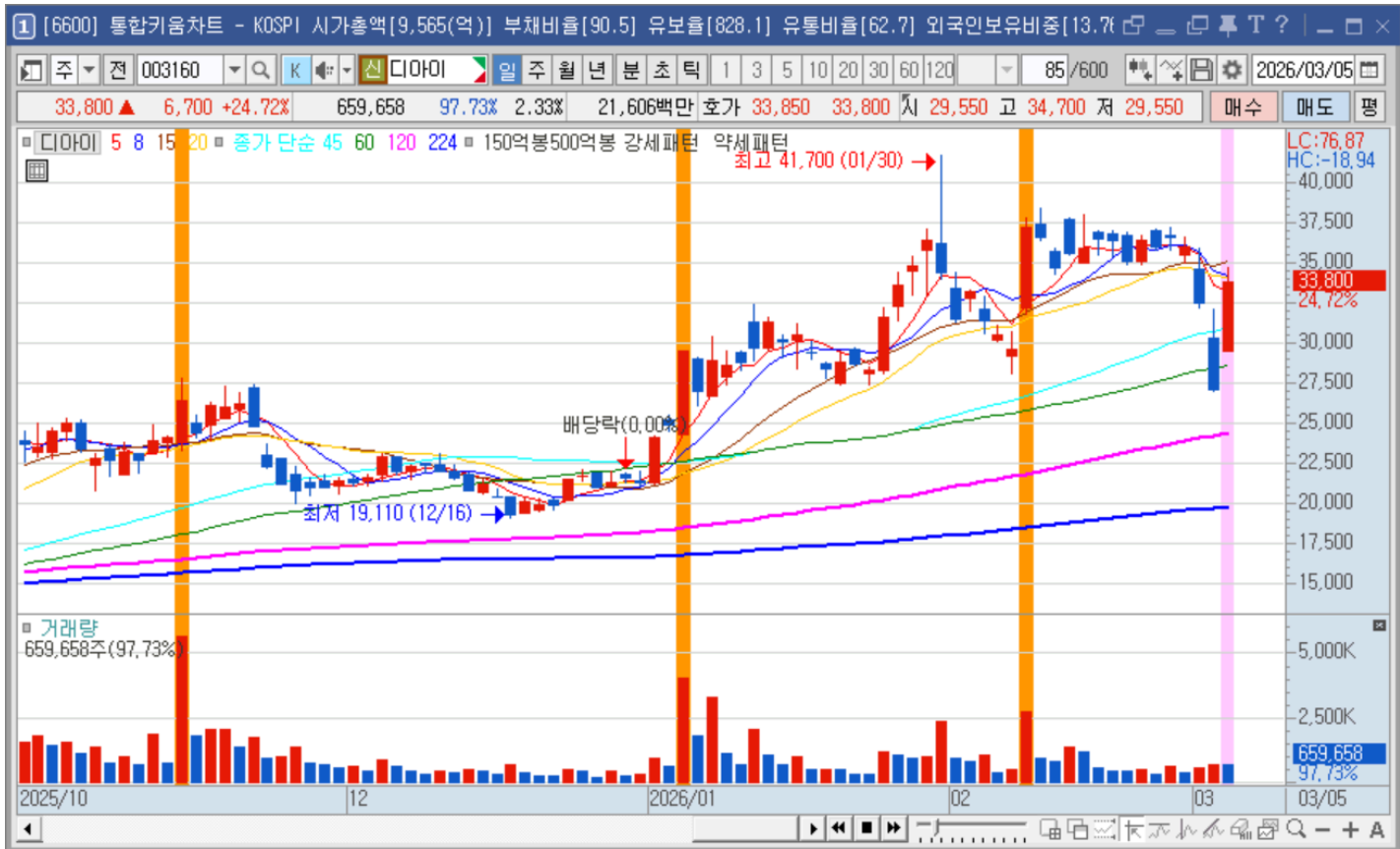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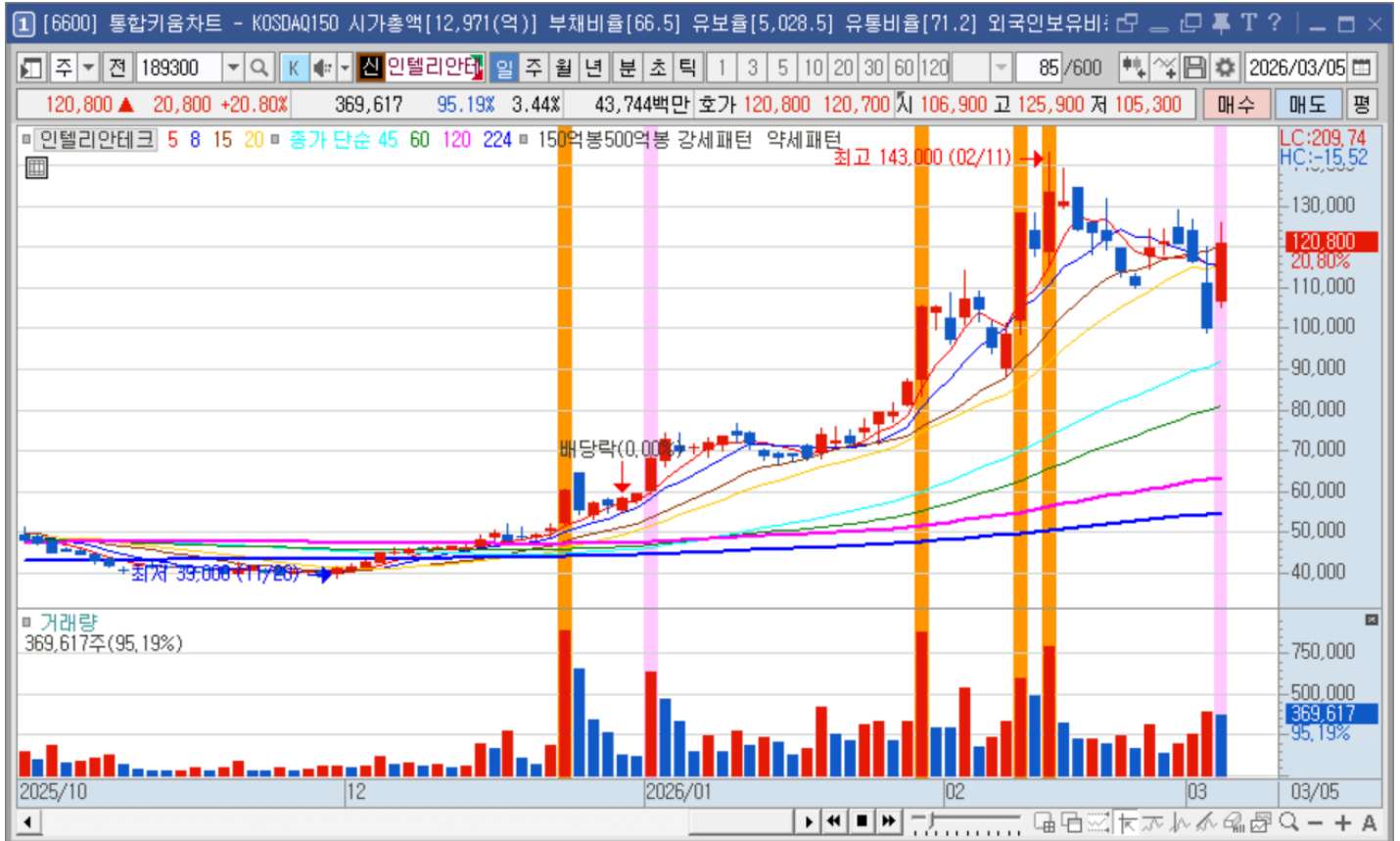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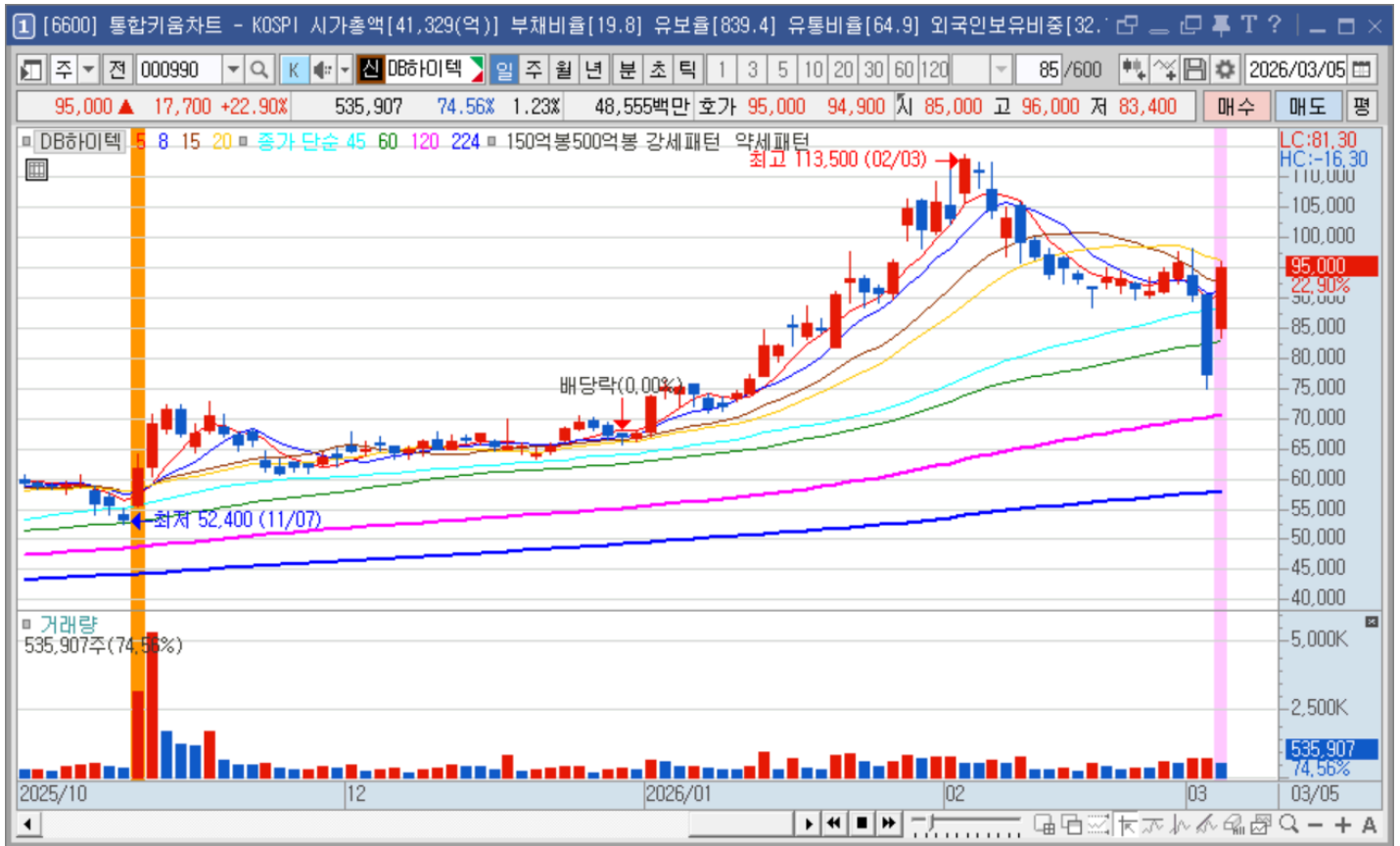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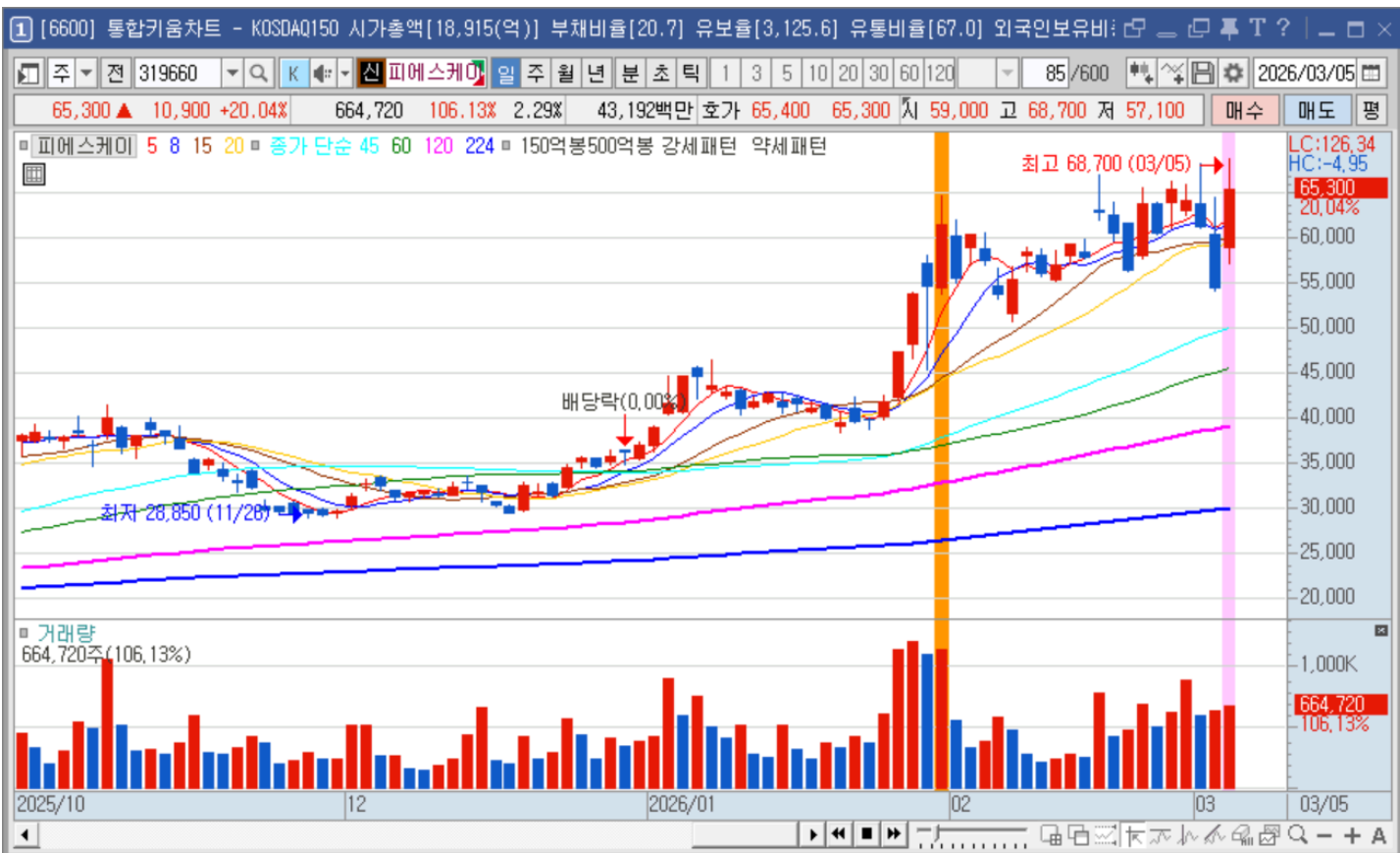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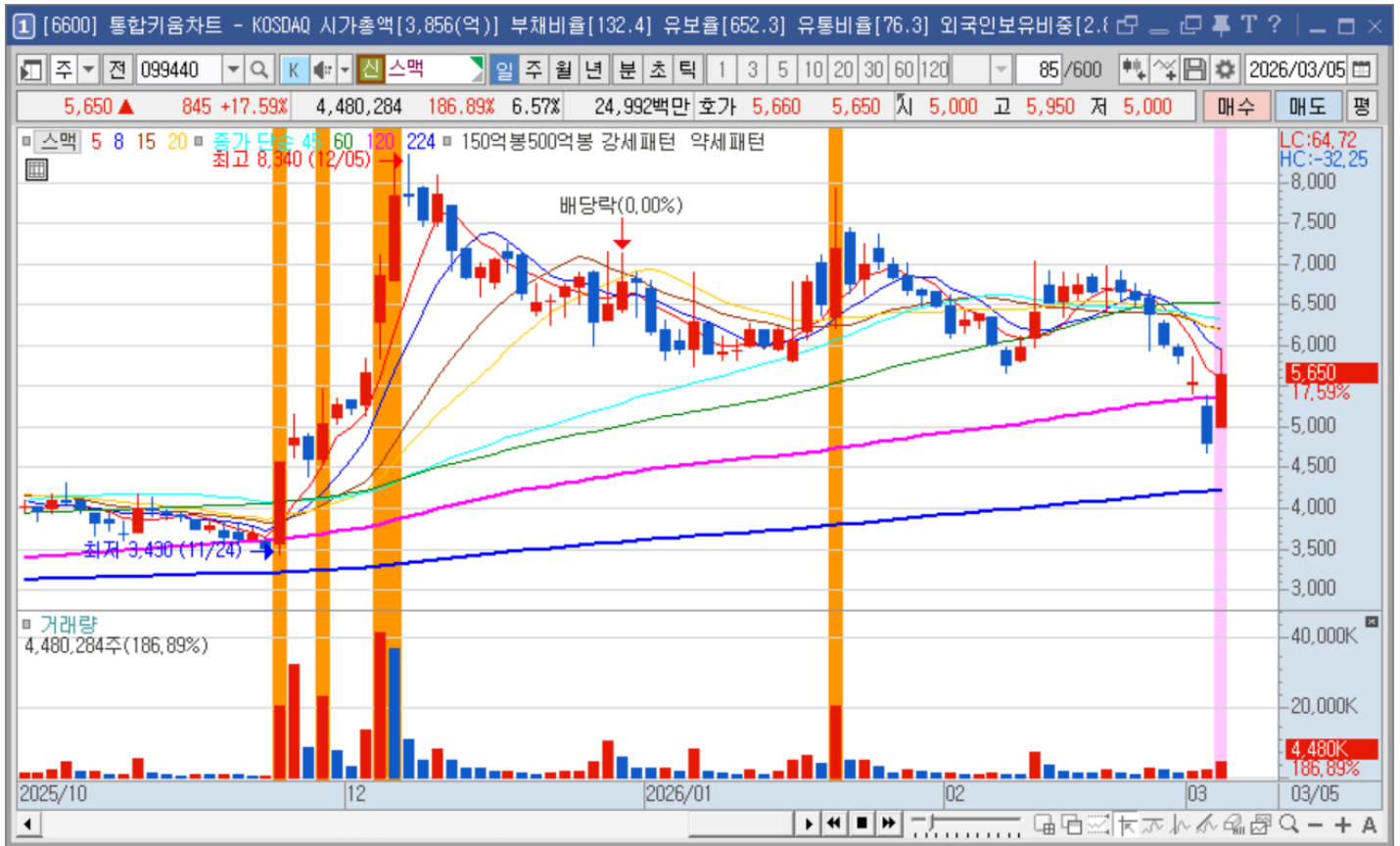














< 1일차 차트 >



< 2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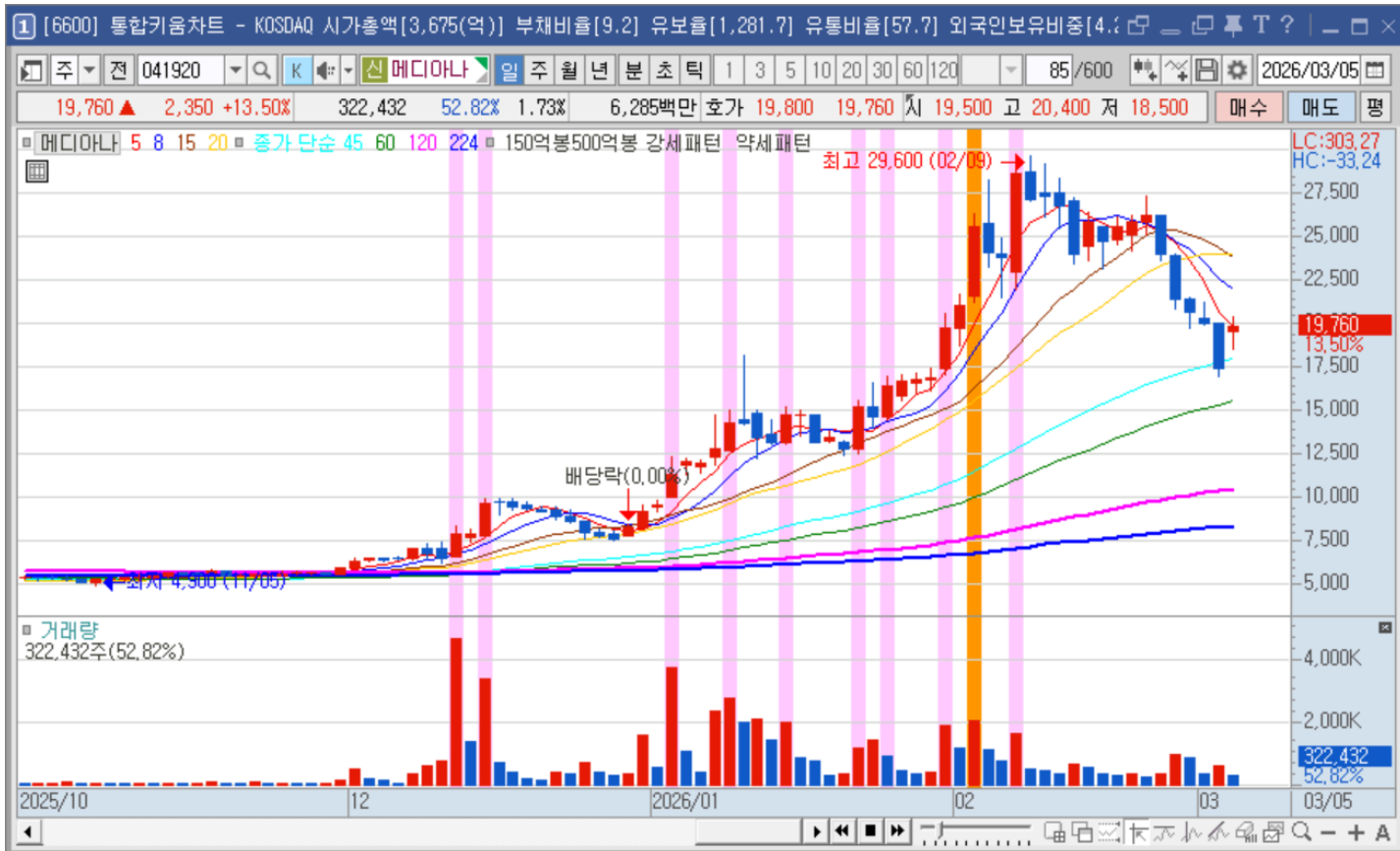
< 8일선 줌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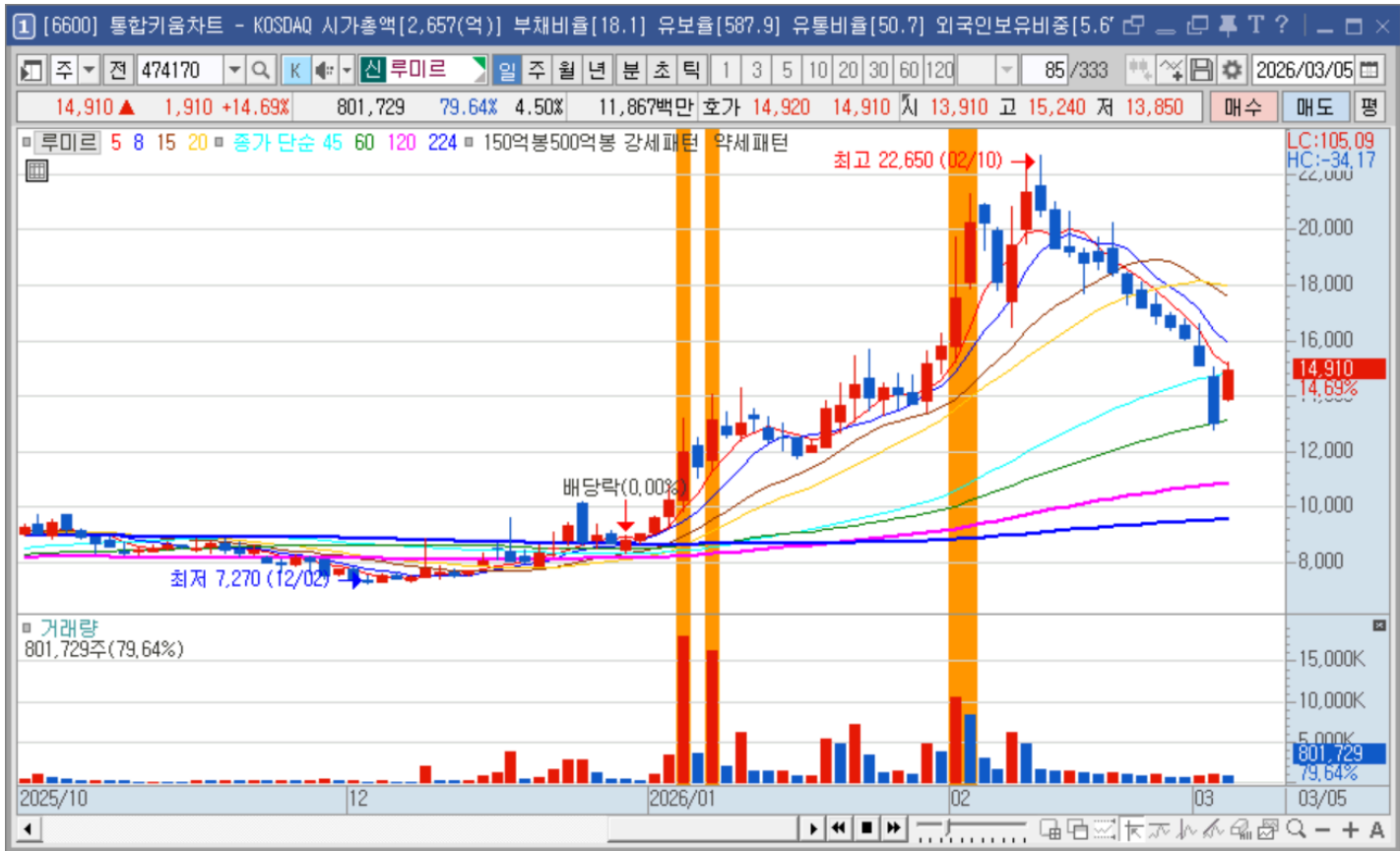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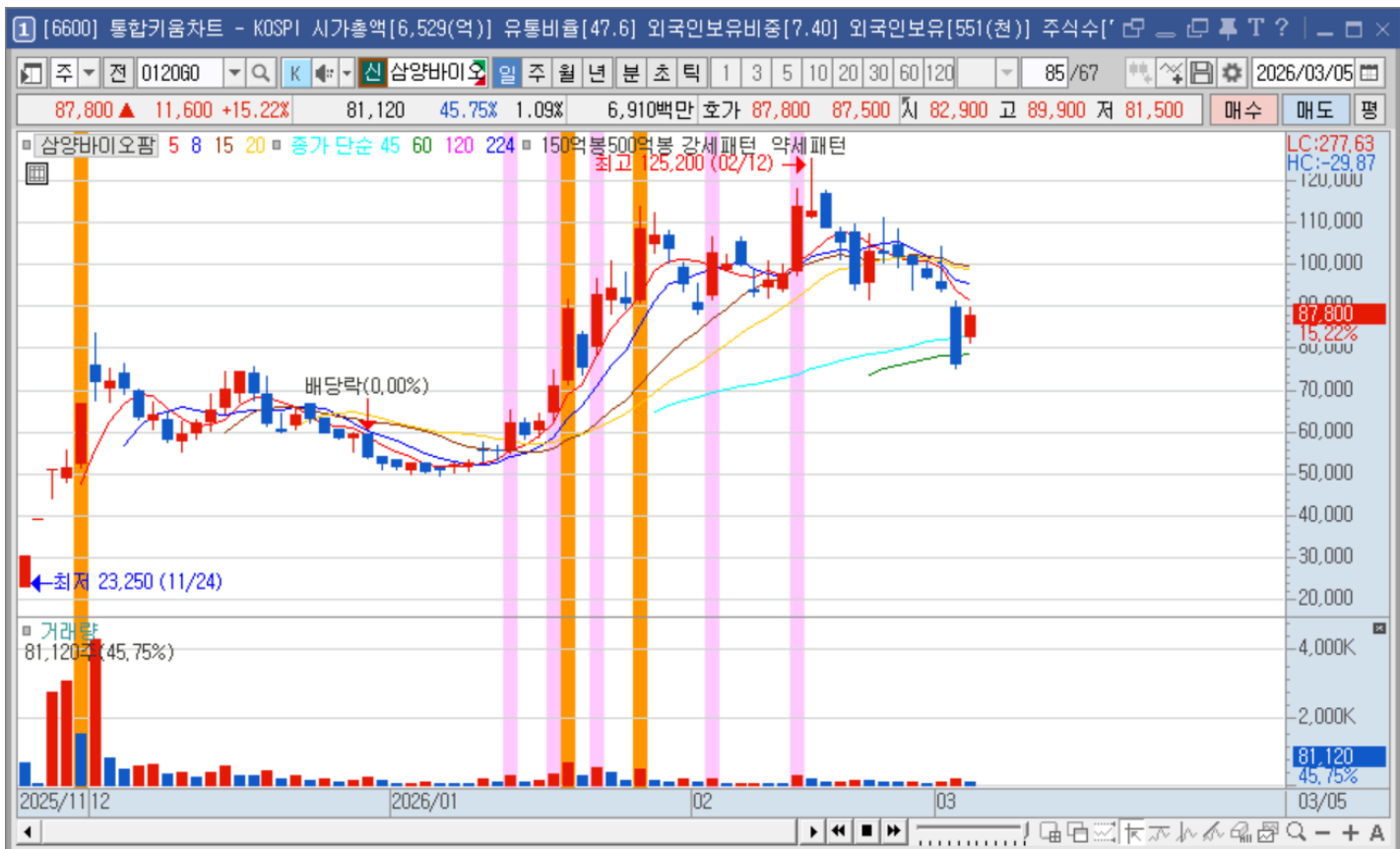
< 15선 줌 차트 >

...

< 33 ~ 45선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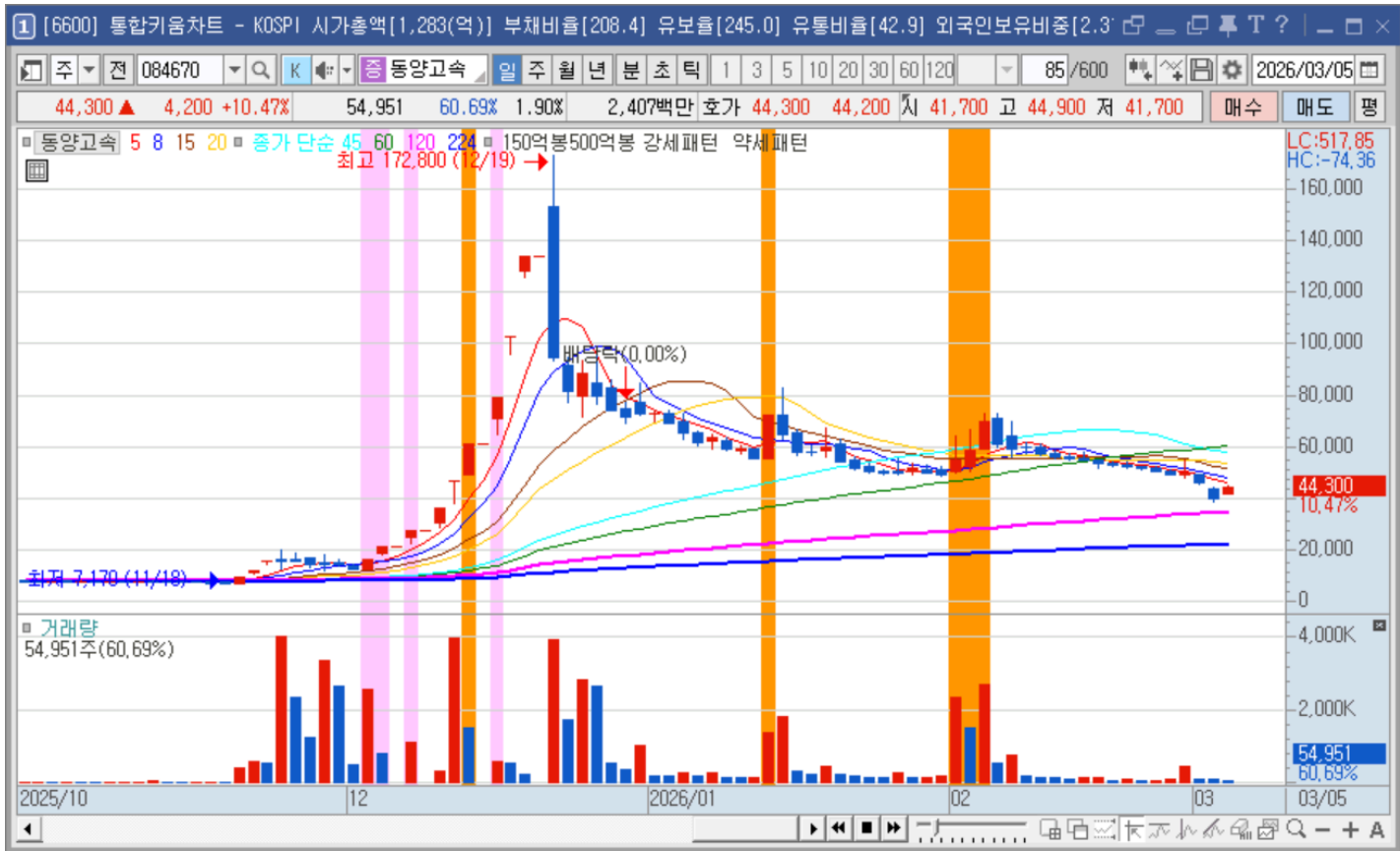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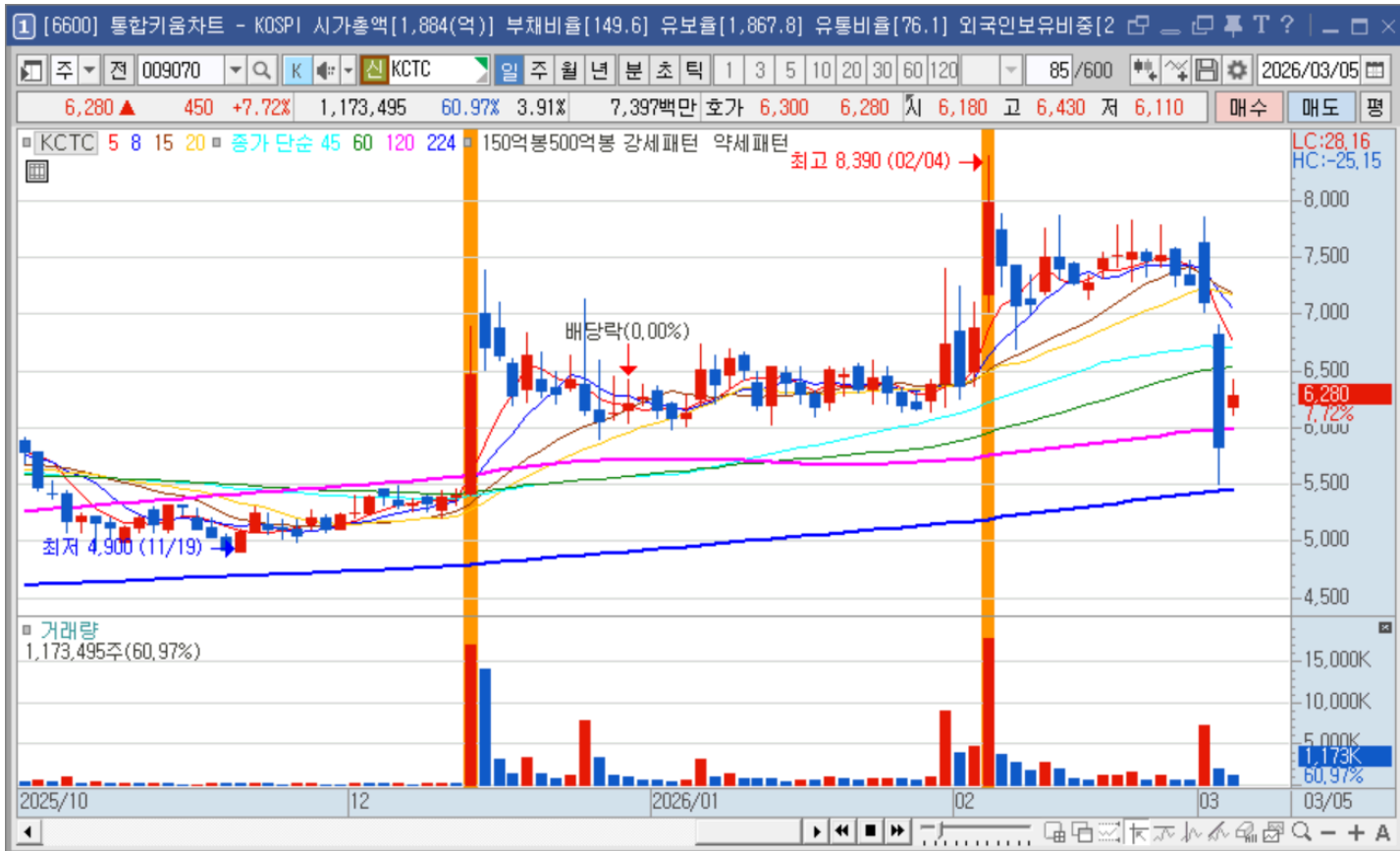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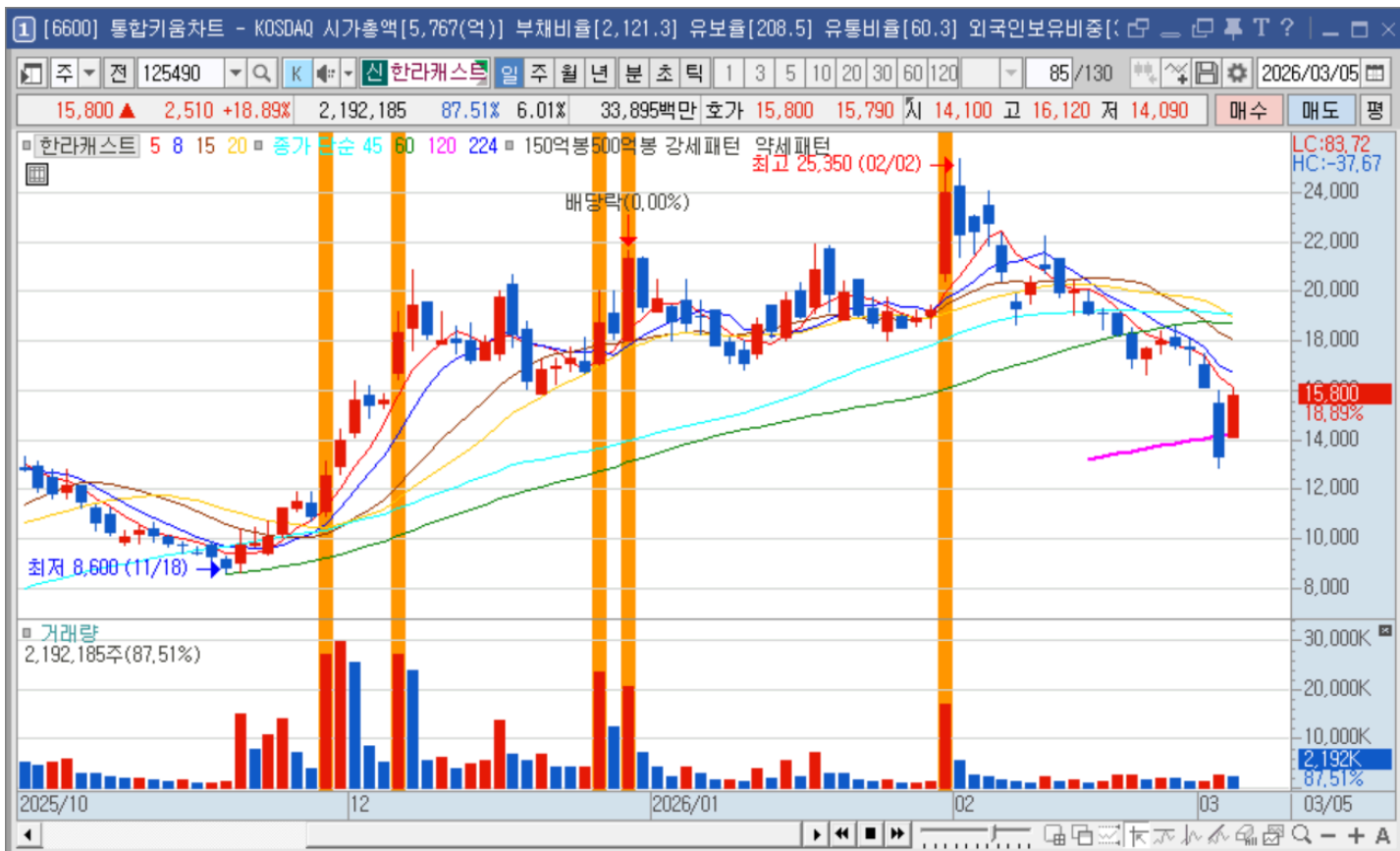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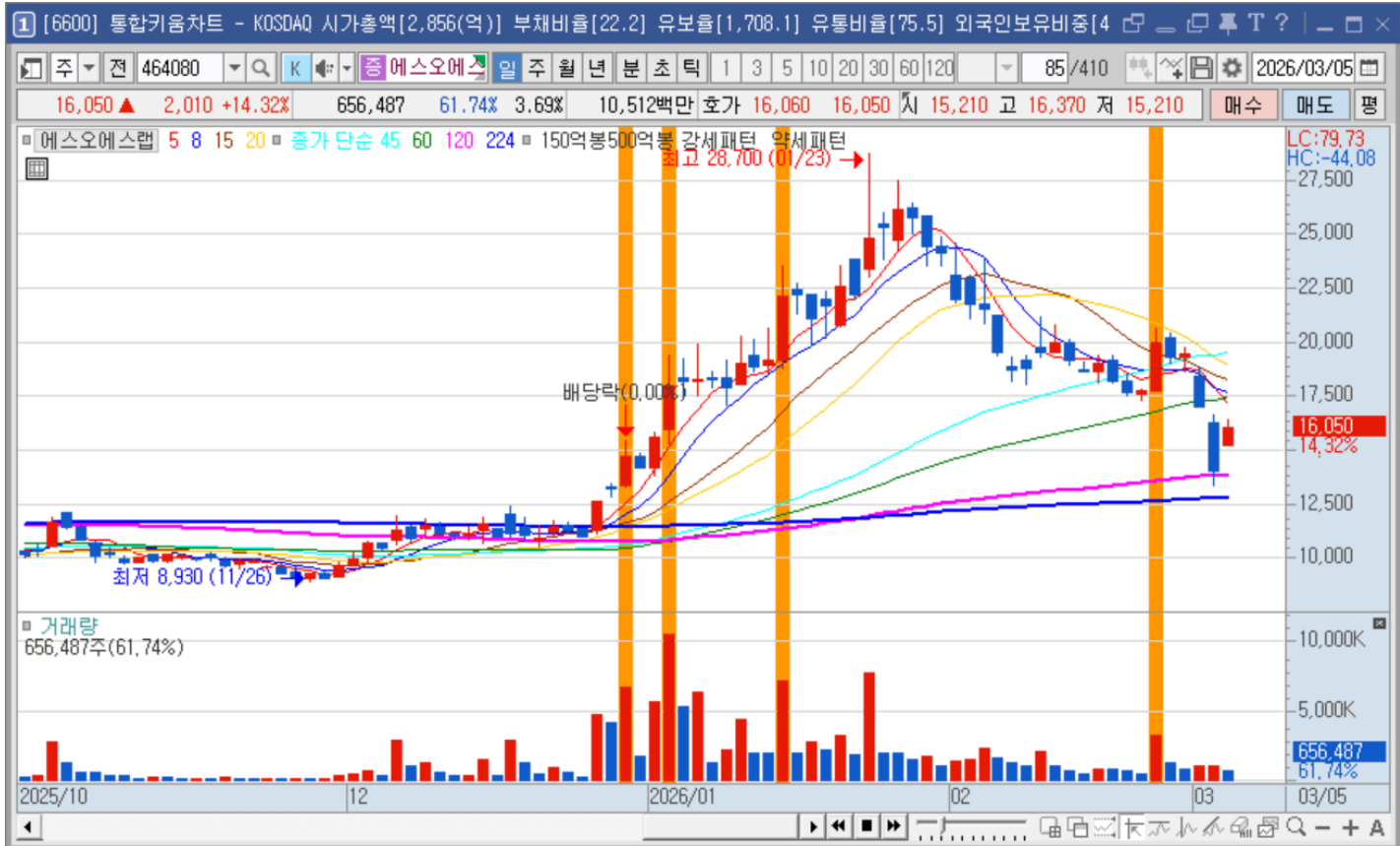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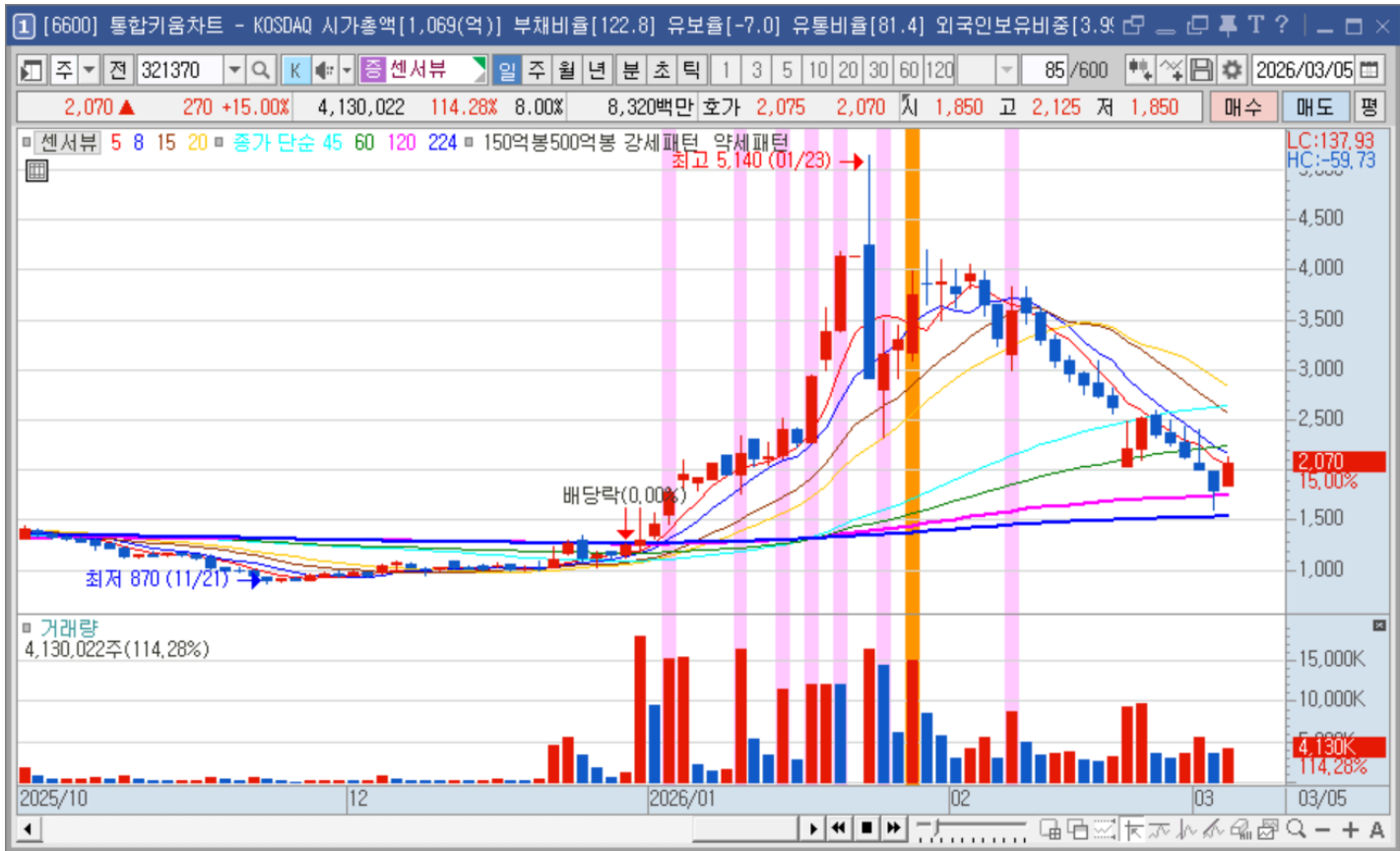




< 120선 차트 >







< 경제 일반 >

주요일정

3월 12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 9.6% 올라 5,580대...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 상승률(종합)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조7천92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566억원, 1조7천151억원 매도 우위였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37.97포인트(14.10%) 급등한 1,116.4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5.40포인트(4.64%) 상승한 1,023.84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5조2천420억원, 15조5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31조2천680억원이다.

환율, 이란 사태 진정 기대에 8.1원 내린 1,468.1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3.189%

코스피 5500·코스닥 1100 극적 반등... '검은 수요일' 낙폭 회복

코스피는 전날 698.37포인트(12.06%) 급락해 5093.54까지 밀렸으나 이날 단숨에 500포인트 가량 밀어올리며 5500선을 탈환했다.

삼성전자가 11% 코스피는 이날 단숨에 500포인트가량 밀어올리면서 5500선도 탈환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10% 넘게 오르면서 전날 낙폭을 만회했다. 대형주 외에도 대부분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하락 종목은 21개, 상승 종목이 902개에 달했다.

개인 1.8조 사들여 지수 견인...코스피 하루만에 9.6% 반등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다. 상승 폭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상승률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11.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개장 직후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 원 금융 안정 조치' 집행을 지시했다는 정책적 기대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나 빼고 다 야수의 심장이었네"...개미들, 레버리지ETF에 1.4조 베팅

전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로, 하루 동안 672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어 KODEX 레버리지(4241억원),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890억원), KODEX 반도체레버리지(795억원),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694억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요 레버리지 상품을 하루 만에 약 1조4000억원어치나 사들였다. 실제로 개인 순매수 상위 ETF 10개 가운데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상품이 7개에 달했다.

코스피 떨어지자 공매도 거래대금 '3조원'...기관·외국인 '하락 베팅'

전날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3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27일 1조9393억원을 기록한 뒤 2거래일 만에 1조원가량 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반등장서 먼저 킬 수도"...25조 던졌던 외국인, 몰래 산 종목 보니

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전날(4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25조841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7631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

았다. 셀트리온(5965억원), 삼성SDI(5244억원), LG화학(4191억원), 에이피알(4037억원), 한화솔루션(3864억원), 하이브(34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날 이란 사태로 국내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다. 이 경우 그간 외국인투자자가 매수해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들 올 때 벌써 30% 벌었다"...전쟁터에서 돈 쓸어 담는 '3대 수혜 업종'

해운·물류 업종에서는 HMM이 3.66% 오르며 2만 1250원에 마감했고, 현대글로벌비스 역시 6.25% 오른 24만 6500원에 마감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정유주인 GS와 SK이노베이션 역시 각각 8.47%, 16.06% 상승했다.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8%), 현대로템(11.63%) 등도 올랐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시장에 집중돼있지만, 불안심리는 해운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다"며 "지난 3일 증시 급락에서 투자대안을 찾아 수급이 쏠리면서 국내 선사들의 주가는 15~30%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33% 오를 때 105% 뛰었다...코스닥글로벌지수 두각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코스닥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닥글로벌지수가 설정 이후 코스닥지수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ETF 체크에 따르면 2022년 11월 설정 이후 코스닥글로벌지수 누적 수익률은 105.6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33.68%, 코스닥150지수는 62.98%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는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약 12조 원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추종 ETF는 약 6조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3000' 코스닥 액티브 ETF는 무슨 종목 담을까

이란 사태에 연이틀 폭락했던 국내 증시에 사태 반영 3거래일째 급격하게 회복됐다. 사상 최악을 겪은 지 하룻만에 사상 최대 폭등세를 탔다.시장이 다시 상승 궤도로 복귀하면서 오는 10일 출격하는 2종의 코스닥 액티브 ETF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닥 3000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5일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제출한 각사의 코스닥액티브ETF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두 ETF 모두 코스닥 전체지수를 비교지수로 더 나은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된다.

코스닥 내 대형주 150개를 담은 코스닥150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모은다. 코스닥150에 포함됐더라도 실적이나 고위험 사업구조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종목들이 있어서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증시 상승 사이클 막바지...단기조정 압력 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4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수익률 분포는 과거 역사적 궤적의 상위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지역의 밸류에이션 역시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낮아지며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이 구조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결합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의 기반이 유지되는 한 이번 하락은 장기적인 약세장보다는 정상적인 조정 국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JP모건 "삼전.SK하닉 여전히 좋다...코스피 7500 전망"

이날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6000포인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강세장 복귀와 개인 자금의 국내 회귀가 지속될 경우 최대 7500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상향 추세이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과열됐

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조정 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며 부담도 완화됐다"고 덧붙였다.추천 업종으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자사주 소각·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지주회사와 보험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6월 시행'서 물러서...하반기 연기 가닥(종합)

오전부터 세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거래소 측은 증권업계의 우려를 수용, 거래시간 연장 시기와 관련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 위탁운용사로..."자본시장 성장"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일부 민간 자산운용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에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바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등유 78%·수입소고기 64%↑...금리도 들썩 '2% 성장' 경고등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평균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대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 삼겹살은 100g 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고 목심은 2442원으로 14.5% 상승했다.

고환율 영향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값도 급등했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g 당 4089원으로 1년 전보다 63.7%나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등유 가격은 4일 기준 배럴당 231.41달러로 하루 만에 77.7% 폭등했다.

주요 주가 지수

종목명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 코스피지수	5,583.90	5,715.30	5,248.13	+490.36	+9.63%	05/03 🕒
✖ 코스피 50	6,079.03	6,285.72	5,642.40	+549.79	+9.94%	05/03 🕒
✖ 코스닥	1,116.41	1,149.54	1,023.84	+137.97	+14.10%	05/03 🕒
🇺🇸 다우존스	47,694.04	48,526.73	47,577.11	-1,045.37	-2.14%	05:06:48 🕒
🇺🇸 S&P 500	6,787.95	6,870.43	6,770.82	-81.54	-1.19%	05:08:21 🕒
🇺🇸 나스닥종합지수	22,571.57	22,877.02	22,500.29	-235.92	-1.03%	05:08:21 🕒
🇺🇸 러셀 2000	2,566.26	2,624.01	2,559.15	-69.75	-2.65%	05:08:20 🕒
🇺🇸 CBOE VIX	25.12	25.84	20.55	+3.94	+18.60%	05:08:16 🕒
🇨🇦 캐나다 S&P/TSX	33,395.96	33,836.00	33,330.84	-546.90	-1.61%	05:08:16 🕒
🇧🇷 브라질 보베스파	180,733	185,366	179,895	-4,634	-2.50%	04:51:00 🕒
🇮🇹 S&P/BMV IPC	68,523.33	70,456.18	68,487.92	-1,904.70	-2.70%	05:08:17 🕒
🇩🇪 DAX	23,774.09	24,366.81	23,754.65	-431.27	-1.78%	01:38:59 🕒
🇬🇧 영국 FTSE	10,413.94	10,636.06	10,402.03	-153.71	-1.45%	01:35:58 🕒
🇫🇷 프랑스 CAC	8,045.80	8,215.02	8,028.13	-121.93	-1.49%	01:35:59 🕒
🇪🇺 유로 스톡스 50	5,784.96	5,917.35	5,764.35	-85.96	-1.46%	01:38:59 🕒
🇳🇱 네덜란드 AEX	995.52	1,007.63	994.43	-4.50	-0.45%	01:35:59 🕒
🇪🇸 스페인 IBEX	17,245.20	17,720.60	17,201.60	-241.80	-1.38%	01:35:59 🕒
🇮🇹 이탈리아 FTSE MIB	44,608.55	45,656.95	44,545.12	-728.33	-1.61%	01:35:58 🕒

실시간 선물 가격

종목명 ▾	월분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 금	2026년 4월	5,077.01	5,204.25	5,059.76	-57.69	-1.12%	05:08:35 🔄
🇺🇸 금/달러		5,068.17	5,195.41	5,051.14	-73.14	-1.42%	05:08:35 🔄
🇰🇷 은	2026년 5월	81.140	85.730	80.663	-2.044	-2.46%	05:08:35 🔄
🇰🇷 구리	2026년 5월	5.7955	5.9528	5.7758	-0.1120	-1.90%	05:08:35 🔄
🇺🇸 백금	2026년 4월	2,109.00	2,222.75	2,102.60	-45.00	-2.09%	05:08:35 🔄
🇺🇸 팔라듐	2026년 6월	1,635.00	1,729.00	1,633.25	-60.40	-3.56%	05:08:35 🔄
🇺🇸 WTI유	2026년 4월	81.26	82.14	75.07	+6.60	+8.84%	05:08:35 🔄
🇬🇧 브렌트유	2026년 5월	85.60	86.27	81.56	+4.20	+5.16%	05:08:35 🔄
🇺🇸 천연가스	2026년 4월	3.002	3.047	2.920	+0.085	+2.91%	05:08:28 🔄
🇺🇸 난방유	2026년 4월	3.5797	3.6486	3.3464	+0.2859	+8.68%	05:08:35 🔄
🇺🇸 기술린 RBOB	2026년 4월	2.6657	2.6860	2.5313	+0.1508	+6.00%	05:08:35 🔄
🇬🇧 런던 가스 오일	2026년 3월	1,110.24	1,134.49	1,043.49	+62.99	+6.01%	05:08:34 🔄
🇬🇧 알루미늄		3,279.95	3,365.60	3,268.80	-53.55	-1.61%	03:29:36 🔄
🇬🇧 아연		3,236.60	3,351.15	3,224.50	-84.55	-2.55%	02:26:54 🔄
🇬🇧 구리		12,929.00	13,153.00	12,801.43	-128.13	-0.98%	02:26:58 🔄
🇬🇧 니켈		17,168.38	17,645.50	17,108.63	-425.00	-2.42%	02:26:42 🔄
🇺🇸 미국 소맥	2026년 5월	585.25	585.90	567.75	+17.00	+2.99%	04:19:59 🔄
🇺🇸 현미	2026년 5월	11.110	11.170	10.730	+0.340	+3.16%	04:19:53 🔄
🇺🇸 미국 옥수수	2026년 5월	453.50	454.40	441.75	+9.75	+2.20%	04:19:59 🔄
🇺🇸 미국 대두	2026년 5월	1,179.00	1,180.75	1,166.50	+9.50	+0.81%	04:19:57 🔄
🇺🇸 미국 대두유	2026년 5월	65.71	66.11	63.47	+2.12	+3.33%	04:19:59 🔄

< 미중 패권전쟁 >

대중용기 6일연속 '대만 출격' 중단...트럼프 방중 앞 수위 조절?

SCMP가 대만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6일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처음 있는 가장 긴 공백이라고 SCMP는 짚었다.

영국·필리핀서 잇단 '중간첩' 사건에...中 "악의적 연관 짓기"

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외국 정보기관을 도운 혐의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집권 노동당 소속 조니 리드 하원의원의 남편인 데이비드 테일러 전 노

동당 고문이 피의자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간첩 행위·외국발 악의적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국가 안보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제 - 미국 >

주요일정

3월 6일 2월 고용동향보고서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 중남미 12국 정상회의

3월 8일 서머타임 시행

3월 11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

3월 12일 1월 무역수지

3월 13일 4분기 GDP 수정치

3월 13일 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PCE)

3월 16일 1월, 2월 소매판매

3월 16일 2월 산업생산

3월 18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

3월 18일 FOMC 회의 발표

Dow falls 1,100 points as oil resumes surge, hitting \$80 a barrel amid Iran conflict

유가 80달러 돌파 및 이란 갈등 재점화에 다우 지수 1,100포인트 폭락

하루간의 짧은 반등을 뒤로하고, 목요일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24포인트(2.3%) 급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1.4%와 1.3% 하락했습니다. 이번 투매 장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시 타격이 큰 보잉(Boeing)과 캐터필러(Caterpillar) 등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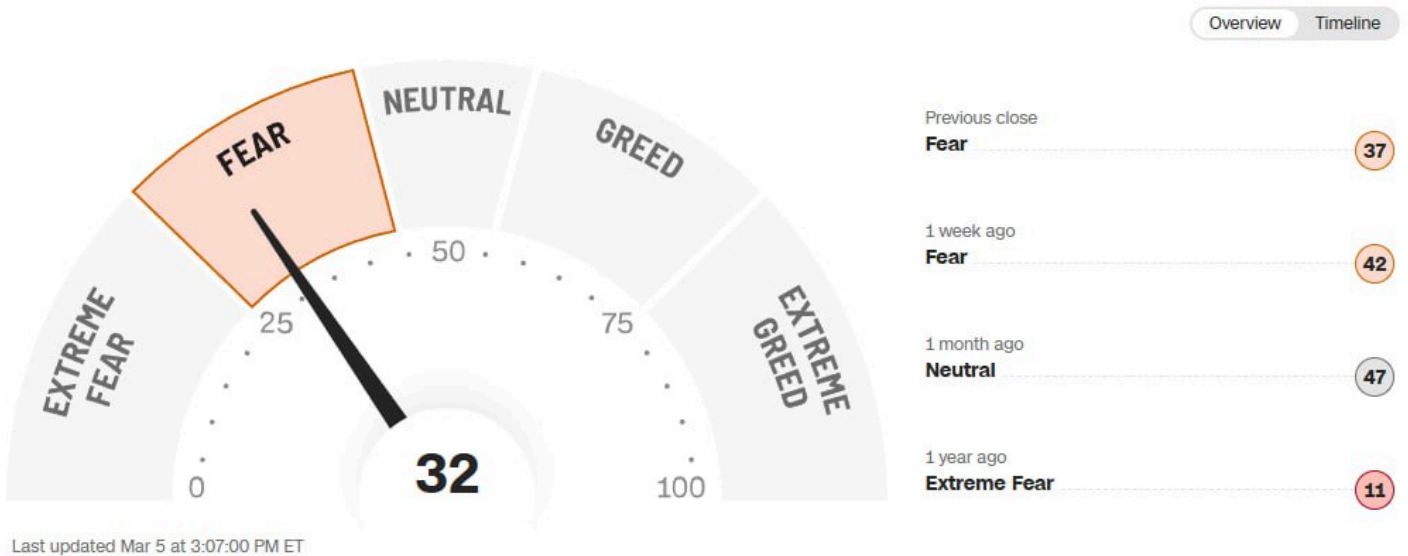
유가는 이란이 미사일로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힌 직후 급등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8% 폭등하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거래되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5% 상승하며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 Investor Sentiment | CNN](#)

Fear & Greed Index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Learn more about the index](#)



Treasury yields move higher amid rising oil and labor costs

유가 및 노동비용 상승 속 국채 수익률 상승

목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은 미-이란 전쟁의 최신 전개 상황과 새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을 다시 긴장시키면서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bp(0.06%p) 이상 오른 4.144%를 기록하며 지난 2월 12일 이후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bp 넘게 상승하며 4.753%를 나타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5bp 이상 오른 3.599%를 기록했습니다.

U.S. dollar climbs as Middle East conflict intensifies, boosting safe-haven demand

중동 갈등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달러화 상승

목요일 달러화는 중동 갈등 심화로 투자자들이 긴장하며 안전자산 수요가 몰림에 따라, 3개월 만의 최고치에서 기록했던 일시적 후퇴를 뒤로하고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군함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이란 측이 미국을 향해 "빠져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서 가졌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전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자국 선박 공격에 대해 이란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복을 다짐하고 공습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측의 충돌은 6일 차에 접어들며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3000건...시장 예상치 밑돌아

미국 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000건으로 전주와 동일하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직전 주와 완전히 동일한 수치로, 로이터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5000건)를 소폭 밑돈다.

고용 안정...이란 사태까지 굳어지는 美 금리동결론

4일(현지 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6.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월(53.8)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2022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제활동 위축을, 웃돌면 확장을 뜻하는데 미국의 서비스 업황은 20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2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도 1월보다 6만 3000명 늘어 시장 전망치(4만 8000명)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Iran oil shock: Fed pick Kevin Warsh apt to cut interest rates anyway

이란 전쟁 유가 충격에도 연준 차기 의장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중단 안 할 것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Fed는 곧 금리 인하를 약속한 케빈 워시를 새 의장으로 맞이할 전망이다.

워시의 인플레이션 관점은 유가 같은 요인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으므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그는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보일 것이다.

美법원 "198조원 상호관세 납부액 돌려줘라"...환급 절차 개시 명령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국제 - 유럽 >

주요일정

3월 19일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결정

European stocks close lower as Iran war continues to dominate sentiment

이란 전쟁 여파 지속에 유럽 증시 하락 마감

목요일 유럽 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전개 상황에 주목하며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1.4% 하락 마감했으며, 미디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과 주요 지역 증시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IBEX 35 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자국 내 군사기지를 이란 공격을 위한 미군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스페인은 끔찍한 태도를 보였다"며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rump: Spain rejects U.S. claim it agreed to cooperate amid Iran war

스페인인 이란 전쟁 중 미군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백악관의 주장을 부인한다

백악관은 스페인이 이제 이란 분쟁과 관련해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드리드는 이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다.

이 혼재된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유럽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나왔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EU 내에서 주요 비판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The bar for Article 5 NATO action against Iran is high

나토 회원국들은 이란 전쟁의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이 블록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높다
나토 회원국들은 중동 전쟁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터키는 이란에서 온 미사일이 격추되었고,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가 드론의 표적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군사 동맹 사무총장 마크 뤼트는 화요일에 필요하다면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토의 집단방위협정인 '제5조'가 발동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높다.

< 국제 - 중국 >

[중국증시-마감]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정책도 뒷받침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6.09포인트(0.64%) 상승한 4,108.57로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1.03포인트(1.17%) 오른 2,672.82로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는 전날 하락 마감에서 반등해 상승 출발했다.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하이증시에서 최근 급락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반도체, 통신, 전자 부품 관련 주식이 상승을 주도했다.

中, 새 5개년계획 초안 공개...'내수진작·기술자립'에 초점

중국이 '내수 진작'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한 새로운 5개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초안을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연례 회의에 제출했다.
초안은 최근 중국 경제 둔화의 구조적 걸림돌로 지적돼온 내수 침체 문제와 관련해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본점을 견지하고, 민생 증진·소비 촉진과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둔화와 만연한 청년 실업, 사회 전반에 깔린 과잉 경쟁 분위기 속에서 소득과 일자리 증대 등 '인적 투자'를 통해 소비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안팎 도전 속 35년만에 최저(종합3보)

중국이 안팎의 도전과제 속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성장목표 하향조정에 대해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으로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유를 확보하고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인 GDP 대비 약 4%를 유지했다.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천 300억위안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약 1천251조원)으로 계획했다.

'5%대 성장' 고집 꺾은 중국, 국방비는 첫 400조원 돌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 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비가 한화 기준 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中, 전인대서 "과학기술 자립" 강조...'AI 플러스' 전략 심화(종합)

그러면서 "원청 혁신 및 핵심 기술상의 난관 돌파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혁신이 심도 있게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적회로·항공우주·바이오제약 등 신흥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 양자 과학 기술, 체화(Embodied)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세대(6G) 통신 등 미래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 총리는 AI와 각 산업을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 심화,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기 보급 촉진, 중점 산업의 AI 활용 상업화·규모화, AI 오픈소스 커뮤니티 건설 지원 등을 강조했다.

< 국제 - 그외 >

주요일정

3월 6일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 상무장관 회담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

[도쿄증시-마감] 중동 불안 재점화에도 닷케이 반등...1.90% ↑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32.52포인트(1.90%) 상승한 55,278.06에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 지수는 전날 한때 53,600대까지 밀렸으나, 이날 반등하면서 장중 4.38% 급등하며 56,000대를 회복했다.

토픽스 지수는 69.00포인트(1.90%) 오른 3,702.67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는 어드밴테스트의 주가가 4% 가까이 뛰었고, 도쿄일렉트론은 2% 넘게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이란 물밑 협상, 이스라엘 정권 흔들기...전쟁 향방 '안갯속'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간접 접촉을 시도하며 전쟁 출구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다만 이란은 즉각 부인하는 등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 접촉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美, 80년만에 잠수함 어뢰 첫 사용...강경파 이란 지도자 '제거' 경고도

미 해군 잠수함이 실전에서 어뢰를 사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파로 이란 권력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폭탄 5천발 퍼부은 이스라엘 "최소 1~2주 더 공습"

이스라엘군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전쟁 발발 후 전투기를 총동원해 총 11차례에 걸쳐 5천발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틀 동안은 전투기 100여대를 투입해 수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군 기지에 250여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런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합동 공격을 통해 수천개의 이란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목표 아래 앞으로 최소 1~2주 더 공습 작전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라면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美 이란 공습] 이란 대비 가성비 떨어지는 무기... 美의 딜레마

미국이 사해드 드론 요격에 사용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가격은 1발당 약 300만~400만 달러(약 44억~59억원)에 이른다. 패트리엇이 90% 이상의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더라도, 이란산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방어 체계의 지속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의 드론 제조업체 힐리오(Hyllo)의 최고경영자(CEO) 아서 에릭슨은 "드론을 하늘로 띄우는 것보다 드론을 격추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분명히 더 비싸다"며 "이건 결국 돈의 문제다. 드론 하나를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 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대 1 정도"라고 말했다.

"패트리엇 빨리 달라"... 걸프국 방공미사일 수급난

미국이 최근 걸프 지역에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무기 인도는 안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요격미사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추가 수요가 몰리며 공급이 제때 안 된 것입니다.

확 줄어든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고갈? 장기전 대비?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개전 초기 빗발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상 작전' 준비...전쟁 변수 될까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은 친미 성향의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이란 국경을 넘어 침투할 수 있는 무장부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라크 쿠르드족에 이 단체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쿠르드족 측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총리실의 아지즈 아마드 부비서실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이란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보도를 부인하면서 "어떤 침투 시도도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대이란 지상 작전 참여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족 무장단체는 이란 반군 세력 중 가장 조직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이슬람국가(IS)와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다.

< 원자재 >

주요일정

3월 6일 산업통상부, 회토류 관련 기업 현장방문

U.S. crude oil tops \$80 per barrel as escalating Iran war disrupts global fuel supplies

이란 전쟁 격화로 글로벌 연료 공급 차질...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0달러 돌파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미사일로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군은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유가는 약 20% 급등했습니다. 소매 가솔린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약 27센트 뛰어올라 갤런당 3.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나자마자 휘발유 1800원 돌파... 정부, 기름값 직접 통제한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정부가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다.

러, 유가 불안 속 "유럽행 가스 수출 중단 논의"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기업들과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전쟁 자금줄을 끊겠다고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유럽 공급을 멈추고 새 시장에 진출해 자리잡는 게 유리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관련주

- [특징주] 지에스이, LNG 가격 상승에도 공급량 확대 불가 소식에 강세...15%↑
- 메리츠증권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수혜 가능성 있어"
- [특징주] 대성에너지, 아시아 LNG 현물가격 5배 급등...도시가스 공급·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 [특징주] 대성산업, 포항 앞바다 최대 29년치 천연가스·4년치 석유 발견 소식에 강세
- [특징주] SH에너지화학, 미 광권 보유...천연가스 20%급등 소식에 상승세
- [특징주] 한선엔지니어링, AI 전력 품귀 대체제 '천연가스' 낙점 소식에 강세
- [특징주] SNT에너지, 러시아 LNG 대란 미국 대체 가능성에..美FWNAC 독점실시권 취득↑
- [특징주] 큐로홀딩스, 가스 값 1000% 폭등...미 텍사스 대규모 유·가스전 사업 부각↑

Gold rises as Middle East conflict escalates, dollar rally pauses

중동 갈등 격화 및 달러 강세 진정에 금값 상승
수요일 금 가격은 중동 지역의 갈등 격화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달러화의 랠리가 멈추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요일에 4% 이상 하락했던 현물 금 가격은 1.6% 반등하며 온스당 5,166.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역시 1.1% 상승한 5,177.60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 정부정책 >

주요일정

3월 6일 재정경제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3월 9일 국회 대미투자특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4일 한일 재무장관회의

3월 17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시행

與 "PBR 1배 이하 밸류업 공시 의무화"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사주 처분,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배 이하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연동하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설비투자가 큰 국내 제조업 특성상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속세와 연동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과하게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반도체 >

주요일정

3월 10일 TSMC 2월 매출

3월 16일 엔비디아 GTC 2026(~19일)★

3월 18일 삼성전자 정기주총

3월 19일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삼전·닉스, 미국 매출만 100조"...메모리 반도체 가격 1Q도 2배

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용 D램의 평균 계약(고정거래) 가격은 전분기보다 110~115% 상승했다. 직전분기 상승률(38~43%)보다 인상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AI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메모리 시장의 큰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SSS)의 지난해 매출은 31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소재 법인 대상 매출도 19조136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역시 AI 서버와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AI 칩(ASIC) 개발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맥쿼리가 301조원, 모건스탠리가 290조원, 씨티가 251조원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맥쿼리 272조원, 모건스탠리 179조원, 씨티 190조원이다. 국내·외 증권사 모두 내년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5배 급등"...HP "AI PC 확대" vs 델 "출고가 인상"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지속되자 PC 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PC 시장 2위 HP와 3위 델이 각각 AI PC 공급 확대와 가격 현실화라는 다른 전략을 선택해 주목된다.

HP와 델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밝혔다.

제프리 클라크 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6개월간 D램 가격은 5.5배, 낸드플래시는 4배 올랐다"며 "2분기에도 1분기 대비 20~50%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조단위 국내채권 투자 검토...채권시장에도 반도체 훈풍(종합)

5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채권 투자 관련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종목은 중·단기물 채권으로 국고채도 포함되며 규모는 여유자금을 고려할 때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6천여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는 200조원까지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증권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채권 투자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주:

- [특징주]티엘비, HBM 이을 '소캠' 신제품 개발 참여...올해 이익 폭발
- 심텍, 엔비디아 '소캠2' 기판 맡는다...메모리 3사 '퀵' 통과
 - [특징주] 심텍 급등, 엔비디아 "소캠 최대 80만장 도입"에 글로벌 기판 공급사 '부각'
- iM證 "대덕전자, AI 수혜 가시화.평가 협상력 개선...목표주가 47%↑"
- [특징주]코리아씨키트, 저전력 AI 핵심 'LPCAMM'...ARM 급등에 온디바이스 수혜주 찾기
- [종목이슈]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LPDDR' 숨은 진주
 - [뉴스핌라씨로] 제주반도체 'LPDDR4X' 연내 출시..."기술 개발 80% 완료"
- [특징주] 쓰리에이로직스, 엔비디아 '차세대 HBM' 시대 연다...'소캠' 본격 도입에 '국내 유일' LPDDR 솔루션 보유 '부각'
- [특징주] 에이팩트, 삼성전자 업계 최고 속도 LPDDR5X 개발 성공...'온디바이스AI 최적' 주요 파트너사↑
- [특징주]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업계 최고 속도 'LPDDR5X 개발성공' 소식에 ↑
 - 오픈엠티, LPDDR5X·HBM3 표준 지원 7nm 테스트 칩 세계 최초 개발
- '다변화 노력' 통한 엑시콘, CXL 2.0 덕 주가 날개
- [뉴스핌 라씨로] 티에프이, 차세대 DRAM 테스터 개발 중...내년 양산 목표
- [종목이슈] 센서뷰, LPDDR·DDR5 관련 장비 내년 초 양산...온디바이스AI 수혜
- '실리콘 러버 소켓 1위' ISC "비메모리 비중 확대... 내년 매출 3000억 목표"
- 오킨스전자, 'SEMICON Taiwan 2025'서 신제품 공개...2분기 최대 실적 모멘텀으로 글로벌 공략 가속

젠슨황·최태원 美 심장부서 재회...HBM 판 키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황 CEO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되는 '베라 루빈' 플랫폼의 개발 상황과 내년에 판매되는 베라 루빈 울트라 AI 가속기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HBM인 HBM4E가 들어간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재회를 통해 반도체 외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SK그룹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사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주**

- 한미반도체, 올해 HBM TC 본더 점유율 71.2% 기록...글로벌 1위
- 한화비전, TC 본더 인식 지연...3Q 매출액 3.4%
- 와이씨, 국내 최초 삼성전자와 HBM 검사장비 공급계약 "HBM4까지 대응 가능"
- [특징주]네오셈, 삼성·SK '넥스트 HBM' CXL 양산 임박...검사장비 상용화 부각↑
- [특징주] 와이씨캠,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HBM3E 공급에 ↑
- 테크윙, SK하이닉스 HBM 큐브 프로브 최종 쉘 테스트 통과
- 유니테스트, SK하이닉스 HBM4용 '번인 테스터' 양산 검증 완료
- [특징주]디아이, 2일만에 또 신고가...HBM 테스트장비 국산화 기대감
- 테라뷰, '포춘 500 선정' HBM 공급업체와 다년간 서비스 계약 체결
- 아이에스티이, 韓 유일 HBM 전용 세정장비 삼성·SK하이닉스 수주...삼성전자 평택 라인 공급 확정
- [특징주]피엠티,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공급 조건부 승인 소식에 강세
-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HBM 수혜 '주목'...목표주가 94%↑
- [특징주]캠트로스, HBM 밸류체인 합류 재평가 가속...중·일 갈등 반사이익 기대
- 아이엠티, SK하이닉스 HBM4 뚫었다...웨이퍼 레이저 열처리·장비 공동개발 완료 "상반기 테스트"
- 제너셈, HBM 최종 테스트 관련 장비 국내 대형 고객사에 첫 공급
- 워트, EUV부터 HBM 전·후공정에도 THC 공급...삼성·SK하이닉스發 수요 폭발 준비 完
- [특징주] 엠디바이스, HBM 하이브리드 본딩 SK하이닉스·삼성 샘플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 "미코, TC본딩 핵심부품 국산화·데이터센터 전력원 모멘텀" [모닝 리포트]
- 마이크로투나노, SK하이닉스 HBM용 프로브카드 쉘테스트 통과 성공..."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 [스톡워치] 하나마이크론, 올해 매출 양호 전망...외인 '순매수'
- 삼성·SK하이닉스, 'HBM4' 개발 본격화에 韓 소부장 '하이브리드 본딩' 사활
- 샘씨엔에스, 오송 신공장 2월 준공...HBM·AI 패키징용 세라믹 사업 속도
- 국전약품, HBM 공정용 소재 라인 평가 통과...3월 본격 상용화

삼양엔씨캠, HBM 패키징용 PR 소재 올해 양산

업계에 따르면 삼양엔씨캠은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HBM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에 사용되는 PR용 고분자(폴리머)의 양산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차 협력사인 PR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고, 해당 협력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최종 고객사에 완성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다. 현재 PR 업체 2곳에 HBM 범프용 소재의 개발용 샘플을 공급해 품질(켈) 테스트를 받고 있다. A사 맞춤형 제품은 올해 양산 시작이 목표다. B사용 제품은 내년 양산할 계획이다.

[단독] LG·두산 등 5곳, K-팹리스에 3천억원 투자한다

현대차와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에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딥엑스 등 6개 스타트업은 이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韓 유조선 7척 감혀...반도체 헬륨 수급도 비상

선박 일정이 지연되면 반도체 단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계는 헬륨의 90%를 카타르에서 조달하고 있다. 헬륨은 노광장비 냉각, 웨이퍼 누설 테스트 등에 쓰이는 반도체 필수 소재다. 중동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 사례다. 김 의원은 "UAE를 중심으로 향후 10여 년 내에 7~8기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수요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 **관련주**

- 우크라 전쟁, MRI 기기 핵심 소재 '헬륨' 부족 비상에 원익머트리얼즈 강세

- [특징주]태경케미컬, 러시아 제재 세계 헬륨 산업 악화 속 국내 유일 관련주 부각
- 풍국주정, '주정'에서 '기초소재' 업체로 확장...주가전망 '긍정적'-리서치알음
 - 또 질소, 산소, 헬륨 등 특수가스의 판매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강화와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소가스 부문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 [특징주] 케이씨, '헬륨' 유통 사업 가치 부각...강세
- [특징주] 에어레인, 420조 기후정책 금융...SK·포스코 투지유치 및 실증사업 부각
 - 에어레인은 자체 개발한 기체 분리막 제품을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산소, 수소, 헬륨 등의 가스를 고순도로 분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 찬반투표... 5월 총파업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이달 중순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노조는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 순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 자동차 >

[단독] 현대차 자율주행, 엔비디아 플랫폼 올라탄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첨단차량플랫폼(AVP)본부장(사장·사진) 겸 포티투닷 대표가 "현대차 AVP본부와 포티투닷, 모셔널의 자율주행 센서를 엔비디아 하이퍼리온10 센서 스위트(suite)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엔비디아 출신인 박 사장이 직접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 간 밀월 관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어 박 사장은 자율주행 AI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사업자(MSP)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버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하면 장기적인 운송 데이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주

- 케이엔에스, 에스오에스랩과 협력...라이다 양산 장비 개발 추진
- [특징주]젠스황·정의선 회동...아우토크립트, 현대차·엔비디아 자율주행 협업 부각
- 리서치알음 "MDS테크, 李정부 소버린AI·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출시 수혜...목표가 71%↑"
- "현대차 SDV 전환, 매출에 큰 기회" [이창열 MDS테크 대표]
- [특징주]세코닉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확대..세계1위 엔비디아 자율주행 카메라 개발 ↑
-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안전성' 국제표준 인증 국내 최초 획득
- [특징주]현대차-엔비디아 동맹...슈어소프트테크, SDV 검증 핵심 파트너 부상
- [IR Briefing]페스카로 "자동차 보안 솔루션, 효율성 핵심"
- [특징주]오토앤, 현대차 SDV 전차종 확대에 수혜주 부각
- 엔비알모션, 테슬라 로보택시에 로봇 감속기 1위 '나브테스코'까지...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진입

< 이차전지 >

주요일정

3월 11일 인터배터리 2026(~13일)★

배터리 소재 기업들 인터배터리 총출동...안전 소재·양극재 전략 제시(종합)

LG화학,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차세대 소재와 기술 경쟁력을 선보인다. 안전 소재부터 하이니켈 양극재, LFP까지 다양한 배터리 소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리 열폭주를 지연·차단하는 통합 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열폭주 지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B(Super Flame Barrier)'는 화염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단단하고 치밀한 장벽 구조로 변해 화염과 압력 전이를 동시에 늦추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해 배터리 팩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LG엔솔, 테슬라 물량서 LG화학 양극재 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롱레인지와 사이버트럭,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엘앤에프의 울트라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는 중고가 자동차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배터리를 울트라하이니켈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저가 모델에는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테슬라가 울트라 하이니켈을 전격 도입하기로 한 이유다. 테슬라에 이 제품을 납품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울트라 하이니켈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엘앤에프뿐이어서 모기업인 LG화학 제품을 배제했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양극재 납품 기업 타이틀을 되찾을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 베트남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신설

포스코퓨처엠이 베트남에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짓는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부터 양산한다. 포스코퓨처엠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약 357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타이응웬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장은 연간 5만5000톤(t)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지에 조성한다. 추가 수주에 맞춰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이프로, 테슬라용 각형 배터리 장비 낙점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인산철(LFP) 각형 배터리 생산을 위해 랜싱 공장 라인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장비 발주(PO)를 시작했고, 포메이션(활성화) 장비를 에이프로가 수주했다. 배터리 최공 고객사는 테슬라가 유력하다.

민테크, '전고체 배터리' 공정 검사 기술 선보인다

전기차 및 중대형 ESS 배터리 검사·진단 전문 기업 민테크(대표 홍영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전고체 배터리 검사 기술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민테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고체 배터리용 실시간 가압 전기화학임피던스분광법(EIS) 검사기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 체계 안전기술 ▲충방전기 일체형 올인원 배터리 검사장비 등 핵심 라인업을 전시한다.

< CO2 / 전력 / 에너지 >

주요일정

3월 6일 기후부, 태양광 협회·단체 간담회

SK 투자 테라파워, 美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

SK(034730)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미 당국이 SMR 등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NRC의 승인으로 미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에서 상업용 원전이 신규 건설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테라파워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SMR 건설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034020)는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와 핵심 기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며 와이오밍주 SMR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HD현대(267250) 역시 테라파워의 첫 SMR 플랜트의 원자로 용기를 제작하는 등 핵심 파트너를 맡고 있다.

태웅, SMR에 이어 체코 진출로 미래 원전 신호탄 쏘다

태웅은 체코의 테몰린과 두코바니에 운영중인 원전에 Body Shell 과 Lid 포함해 단조품 Full set를 스코다JS 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이 고정형 캐스크를 수출하는 최초의 계약으로 체코 원전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AI / 로봇 >

'IPO 임박' 오픈AI, 매출 250억 달러 돌파...'챗GPT' 3년 만에 빅테크 반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은 올해 2월 말 기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말 약 214억 달러(약 28조원)에서 약 17% 증가한 규모다. 연환산 매출은 특정 시점의 매출 흐름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로 환산한 지표다. 이번 매출 규모는 AI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빅테크 수준의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 출시 당시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기업용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매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IPO 준비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미국 로펌 쿠리(Cooley)와 왁텔(Wachtell)을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장 시 기업가치는 최대 1조 달러(약 133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삼성SDS, 챗GPT 엔터 고객사 올해만 10곳 ↑ ...AX 사례 추적

삼성SDS가 챗GPT 엔터프라이즈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양사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리셀러 파트너 계약에 따른 성과다.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삼성SDS는 최근 다양한 기업들과 챗GPT 엔터프라이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상대는 고려아연, 아이크래프트, 티맥스소프트 등이다.

고려아연은 AI 기반 스마트 제련소 등 전사적 AI 활용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 아이크래프트는 엔지니어 중심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LG CNS, GPU 576장·1.2MW급 'AI 박스' 출시..."구축 기간 6개월"

LG CNS가 컨테이너형 소형 데이터센터를 앞세워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컨테이너 한 대에 GPU 수백장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국내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형 소형 데이터센터 'AI 박스'를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에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약 2만7179제곱미터(약 8221평) 규모 부지에 50여개 AI 박스를 집적해 대규모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HD현대·두산, 불꽃 튀는 '건설기계 AI 경쟁'

5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267270)는 3~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콘엑스포 2026'에서 자체 개발한 '리얼 엑스(Real-X)' 기반 장비를 선보였다. 해당 장비들은 운전자가 없는 '캐빈 리스' 형태로도 고도화된 움직임을 시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는 이번 전시 현장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중장비를 대화형 로봇처럼 다루는 AI 어시스턴스 기술을 선보였다. 일본 코마츠는 자율 운반 시스템과 텔레매틱스(통신 모듈)를 결합한 광산용 트럭을 공개했다.

'다크 팩토리' 이어 '다크 실험실' AI·로봇이 신약 연구 효율 5배 높였다

지난달 11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AI 기반 신약 개발 업체 '엑스탈파이(XTalPI)' 본사. 보안구역 내 독립된 공간에는 면적 2.5㎡의 자동화 로봇 워크스테이션 100대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그 안에서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이 AI가 설계한 공식에 따라 각종 화학 실험을 이어갔다. 워크스테이션 사이로 자율주행로봇(AGV)이 지나다니며 실험이 끝난 샘플을 옮겨 담았다. 사람 없이 AI가 공장을 운영하는 '다크 팩토리'처럼 AI가 실험을 설계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다크 실험실'의 모습이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 IT / 신기술 >

주요일정

3월 11일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

3월 19일 애플, 보급형 아이폰 출시

메모리 가격 급등에..."올해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7.3%↓"

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21억4천만대로 지난해(23억1천만대)보다 7.3%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졌던 성장 사이클이 종료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90~95% 급증하고, 범용 D램과 HBM을 포함한 평균 가격은 80~8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BIO / 의료시 >

주요일정

3월 9일 East-West Biopharma Summit 2026(~11일)★

위고비 특허 만료 스타트, 올해 복제약 잇따른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 특허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속속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인도 기업이 위고비 복제약 개발을 위한 최종 허가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펩진과 삼천당제약도 특허 만료에 대비해 관련 복제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 이달 말 중국과 인도, 캐나다 등에서 만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내 터키와 브라질 등으로 특허 만료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2028년, 미국 2032년, 유럽연합(EU)·일본 2033년 등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91억 덴마크크로네(약 18조원) 규모를 형성했던 위고비 시장이 복제약의 등장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단독] 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에크노글루타이드' 적응증 확대 착수출처 :

HK이노엔이 도입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에크노글루타이드(Ecnoglutide)'가 수면 무호흡증까지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며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5일 헬스코리아뉴스 취재 결과, 중국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Sciwind Biosciences)는 최근 '에크노글루타이드'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 시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상은 과체중과 연관된 수면 무호흡증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에크노글루타이드'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을 비교해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Lilly Employer Connect platform launches with over fifteen independent program administrators offering tailored obesity coverage options to expand access to patients

릴리 고용주 연결 플랫폼이 15개 이상의 독립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함께 출범하여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비만 보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체중 관리 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단일 환자 사용 제프바운드 퀵펜(Zepbound KwikPen)을 승인했으며, 이는 단일 기기에서 주 4회 주사를 투여합니다. Zepbound가 가장 많이 처방받았어요

[단독] 에스디바이오센서, 22조 임상화학 진단 시장 진출

체외진단 전문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임상화학 진단으로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최근 신규 임상화학 기반 플랫폼 '스탠다드 씨(STANDARD C)'를 론칭했다.

회사는 신속면역화학진단 제품 '스탠다드 큐(STANDARD Q)'를 비롯해 면역화학 형광진단 제품 '스탠다드 에프(STANDARD F)', 분자진단 제품 '스탠다드 엠(STANDARD M)', 효소 면역반응 진단 제품 '스탠다드 이(STANDARD E)'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Zura Bio to Present Phase 2 TibuSURE Study Design Poster Evaluating Dual IL-17A and BAFF Inhibition in Systemic Sclerosis at 9th Systemic Sclerosis World Congress | Zura Bio Ltd

주라 바이오, 제9회 전신성 경화증 세계 학회에서 전신성 경화증 대상 이중 IL-17A 및 BAFF 억제 평가 2상 TibuSURE 연구 설계 포스터 발표 예정

중증 및 쇠약성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환자의 삶을 의미 있게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주라 바이오 리미티드(나스닥: ZURA)(이하 "주라")는 오늘, 전신성 경화증(SSc)에서 티불리주맵(TibuSURE)을 평가하는 진행 중인 2상 TibuSURE 임상시험 설계가 2026년 3

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전신성 경화증 세계 학회(Systemic Sclerosis World Congress)에서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ZB-106)의 설계가 2026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전신성 경화증 세계 학회(Systemic Sclerosis World Congress)에서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선 / 해운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로비에 LIG넥스원 가세, 자동차 대신 방산협력 중심 총력전

한국과 독일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경쟁이 막판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애초 잠수함 수주를 대가로 한국과 독일에 현지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술 시너지를 위해 주요 방산업체가 가세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5일 비영리단체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파운데이션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캐나다 당국에 로비 활동을 하겠다고 최근 등록했다.

HD현대 "필리핀 조선소 글로벌 MRO 거점으로 육성" 청사진 제시

HD현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현지 사업 청사진을 그렸다. HD현대필리핀 조선소를 유지·보수·운영(MRO) 거점으로 키우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품 보관시설과 인력양성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특하면 막히는 호르무즈, 대안은 북극항로

• 관련주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한화오션이 맡는다
- [특징주] kctc,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 본격 추진에 ↑
- [특징주] 동방, 국정위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 전격추진에 항만 인프라 운영경험 부각 ↑
- '부산에 hmm 옮겨 북극항로 중심지로' 공약... 지역 경제 활로 될까
- [특징주] 흥아해운, 2000원대 재진입... 18% 급등
- 몸집 불린 STX그린로지스... 중견사 썬에이스해운 인수
- 팬오션과 해운업 시너지... 공정성 논란 딛고 초대형 선사로
- [특징주] 미·영 후티 근거지 공습 소식에 국내 1위 가스선 보유사 KSS해운 강세
- [특징주] 대한해운, 컨테이너 운임지수 최고치 경신에 '급등'
- [특징주] 티케이케미칼, '홍해 리스크'에 2조 대어 SM상선 부각 '강세'
- [특징주] 케이엘넷, 윤석열 첫 부산 지역 방문 북항 재개발 부각
- [특징주] 토탈소프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조기 착공 소식에 급등세
- [특징주] 태웅로직스, 해운-철도-육로 3자물류 1위... 홍해발 물류 대란 우려에 상승세
- [특징주] 인터지스, 美·英 후티반군 공습에 물류대란 가속화... 종합물류사 부각
- [특징주] 한솔로지스틱스, 중국발 물류대란 우려에 운송주 부각... 21% ↑
-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선 비중 확대

< 우주 / 항공 >

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 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음 수순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다. 당장 스페이스X 가치만 놓고 보면 IPO 흥행에 이견을 달긴 어렵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50억달러,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약 80억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9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광대역 위성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위성 운영사다.

• 관련주:

- 스페이스X 투자, 최대 수혜는 미래에셋벤처투자 아닌 미래에셋증권-하나
- '4000억달러 밸류' 스페이스X, 초기 투자 VC 웃는다
- [특징주] 미래에셋벤처투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2300억 원 유상증자 투자 이력 부각에 강세
- [특징주]아주B투자, 스페이스X 지분 보유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
- 스피어, 스페이스X 상대 '빅딜'...10년간 1조3900억원 계약 체결
- [기업탐구] 에이치브이엠, 첨단 금속으로 스페이스X 랠리에 '탑승'
- [특징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美 록히드마틴·스페이스X·NASA 고객사로 확보...수주물량 대응 총력↑
- [특징주] 세아베스틸지주, 美 스페이스X 공급계약 호재에 상한가
- [특징주] 컨텍, 스페이스X 상장 가시화 소식에 고객사 '부각'
- 컨텍, "AP위성 인수 실적개선 전망...위성 데이터 활용 기대"-유안타
- [특징주]와이제이링크, 스페이스X가 짚은 기술력...11조 SMT시장 리더 '짚'
- [모델솔루션 IPO] "한국타이어와 시너지, 기업가치 제고"
- 센서뷰, 코스닥 도전..."퀵컴이 짚은 RF기술력"
- [특징주] 나노팀, 美 스페이스X에 '캡필러' 샘플 공급 소식 강세
- 솔루엠 "스페이스X 생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 [특징주] LK삼양, 트럼프 업은 '머스크' 우주사업 '투더문'... 스페이스X와 우주간다
- 루미르, 스페이스X와 '세계 최고 해상도' SAR 위성 추가 발사 계약 체결
- 이녹스첨단소재, 스페이스X에 우주항공 소재 3년 연속 공급
- [특징주]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링크' 유통 총판 낙점에 ↑
- LG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 '스타십'에 배터리 장착 예정
- 성우, 스페이스X·테슬라 '주니퍼'에 2170 탑캡 공급...'머스크 밸류체인' 완성

위성 설계부터 발사까지...전남, 우주생태계 구축 속도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남 고흥군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2024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면서 전남은 발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우주 관련 앵커 기업이 입주 협약을 체결하며, 발사체 제조와 핵심 부품 산업이 집적되는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금 주춤할 때, 비트코인은 치솟았다... '디지털 금' 논쟁 재점화

암호화폐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쟁 충격이 암호화폐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글래스노드는 보고서에서 "시장은 위기 가격 반영 국면에서 벗어나, 포지셔닝(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격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조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의 저가 매수세도 힘을 보탰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약 6억80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표명한 것이 정책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로 변신하는 채굴업체... 10조 비트코인 매각 움직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보유 코인을 매각해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채굴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약 8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이를 현금화해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채굴업체들이 AI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인프라 구조의 유사성이 있다. 대규모 채굴시설은 값싼 전력 확보 능력과 서버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단독] 두나무·네이버 합병 좌초 위기... 與 '지분 예외 규정' 열어주기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지분 상한을 넘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합병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지분 제한 규정에는 '관계사와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된다. TF 핵심 관계자는 "20% 지분 제한에는 관계사와 특수관계인이 모두 포함된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관계사 등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초읽기...채비 서두르는 韓 코인거래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자금세탁방지(AML)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APP),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쿠콘 "글로벌페이:데이터 신사업 수익화 원년 만들겠다"

쿠콘이 보유한 200만 QR 가맹점과 10만 프랜차이즈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결제와 출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플러스와 연동을 완료했고, 상반기 20개국 50여개 이상의 결제사와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와 정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 크로스보더 결제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매출을 본격화해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 주당 300원으로 확정했다. 3년 연속 배당 확대 흐름을 이어가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인다.

< AR / XR >

< IP / 엔터 >

주요일정

3월 6일 JYP 글로벌 걸그룹 GIRLSET, 신곡 'Tweak' 발표

3월 15일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3월 17일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Origin(오리진)' PS5·스팀 선공개

3월 19일 넥서스-플레이워드코리아 '썸M 온 크로스' 출시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양대 앱 마켓서 인기 1위

넷마블[251270]은 이달 3일 정식 출시한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양대 앱 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스톤에이지 키우기'는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스톤에이지' IP의 최신작이다.

이용자는 6명의 조련사와 18기의 펫을 조합해 전략적인 전투를 펼칠 수 있다.

< 건설 / 인프라 >

'28억 송파 아파트가 22억에'...버티던 다주택자들 결국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말 중개 거래로 21억8500만원에 손바꿈했다. 같은 면적 이전 최고가(28억원)보다 6억1500만원 낮은 가격이다.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자 절세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매물 누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며 "급매물이 나와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 응찰'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 신공항 연내 첫 삽 뜬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최종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며 "그때부터는 현장사무소 설치나 제작 장비 구입이 가능해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앞서 두 차례 입찰 공고를 했지만,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공동수급체)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국방 / 방산 >

주요일정

3월 9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실시(~19일)

3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란 '핵 개발' 막으려고 공습한 미국...북한엔 "대화 가능성 있어" 입장 고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천궁-II 실전서 이란 미사일 90% 요격...K방산 '수주 잭팟' 청신호

최근 중동 충돌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군이 운용 중인 천궁-II가 이란 측 미사일 요격 작전에 투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II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쟁에서 천궁-II가 실전 능력을 입증하면서 중동 지역 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궁-II는 2022년 UAE(약 4조 1000억 원)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4조 3000억 원), 2024년 이라크(3조 7000억 원)가 잇따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수요를 입증했다.

"천궁-II 더 빨리 달라" ...UAE, 조기 공급 요청

UAE는 이란의 공격 이후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천궁-II 포대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급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 국가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군사 충돌이 격화한 중동 지역으로 장비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다.

• 관련주:

- UAE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II', 이란 미사일 요격
 - UAE 군 당국은 2022년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2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했다.
- [특징주] LIG넥스원, 3.7조원 규모 천궁-II 수출계약에 5% 급등
- 지엘리서치 "엠앤씨솔루션, 방산 수출 확대 수혜 기대...해외 직수출도 주목"
- [특징주] 아이쓰리시스템, '전장 넘어 우주로'... 밸류 프리미엄 기대감에 9% 급등
 - "엠앤씨솔루션은 국내 방산 업체 핵심 부품 공급사로, 주요고객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을 두고 있다"라며 "핵심 공급처는 지상분야(K9, K2, 레드백 등), 유도분야(천무, 천궁) 해상/항공 분야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전기식 구동장치 및 유압 계통 부품이다"라고 전했다.
- 파이버프로, 28억 규모 천궁2 수출용 관성측정기 소요자재 수주
- [특징주] 퍼스텍, 전운 고조 속 드론 기술력 재조명에 강세
 - 퍼스텍은 LIG넥스원과 체결한 약 46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구동장치 공급 계약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맺은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양산 계약 등을 확보하고 있다.
- [특징주] 한일단조, 천궁-II 탄두 구조체 생산...중동사태에 상승세
 - 한일단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궁, 천궁과 천궁-II 탄두구조체, 155mm 포탄을 비롯해 자동차와 등 철제 제품을 만드는 단조 전문기업
- [특징주] 코츠테크놀로지, 정부 우크라 천궁 등 직접 지원 검토 소식에 강세
 - 코츠테크놀로지가 강세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천궁 등 각종 무기·군수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코츠테크놀로지는 천궁2에 통합 운용컴퓨터 외 4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
- 하나證券 "RF시스템즈, 전방수요 확대 안정적 수주...수익 개선 본격화"

- 회사는 금속 특수 접합(Dip Brazing) 기술 기반의 방산용 하드웨어 부품 전문 기업으로, 안테나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환경제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동사의 고객사인 LIG넥스원의 2025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23조원까지 확대됐다"라며 "동사는 천궁-II, 해궁, 해성 등 유도무기 체계에 탐색기 안테나 및 회전 모듈을, 대포병 탐지 레이더 체계에는 환경제어 장치와 레이더 관련 핵심 부품 등 다수 체계의 구성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 삼현, '글로벌 방산 핵심' 자리했다...사우디 수출 '천궁-II' 다기능레이더 '필수 부품' 본격 공급
 - 삼현은 지난 1월 총 100억원 규모의 UAE 수출용 '천궁-II' 전기식 수평안정화장치 수주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KSA)의 수출용 '천궁-II' 지대공유도무기(M-SAM) 체계에 적용될 '다기능레이더(MFR) 구동유니트를 약 100억원 규모로 신규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 매각설 나온 풍산... '알짜' 팔아 아들 이끄는 美 구리 회사 지원할까

방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풍산의 매각설이 돌았다고 한다. 미국 국적인 류진 회장의 아들이 현행 법령상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있고 승계 의지도 크지 않아 류 회장이 오래전부터 방산 부문 매각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풍산그룹은 방산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복수의 기업과 물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잠재 인수 후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이 거론된다.

< 정치 >

李대통령 "빈말하지 않는다...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바가지 제재 방안도 논의"(종합)

李대통령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 시청하도록 제도 개선"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미세조정 가능"

< M&A / 주요 공시 >

IPO

3월 6일 에스팀 신규상장

3월 9일 엑스비스 신규상장

IMM PE, 대웅그룹 계열 시지바이오 인수한다...6000억 안팎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최근 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사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은 시지바이오 최대주주 블루넷이 보유 중인 경영권 지분 55.84%다. 블루넷은 윤재승 전 대웅그룹 회장이 지분 과반을 갖고 있는 사실상 오너 가족 회사다. 거래 금액은 6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지바이오의 골형성 단백질 기반 골이식재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력 제품 '노보시스 퍼티'는 FDA 확증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미국·일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시지바이오의 매출액은 2022년 1297억원에서 2024년 200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약,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영업이익 20.1% 증가

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액 9269억 원, 영업이익 96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 20.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매출액 2429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 37.6% 늘었다.

원익QnC 작년 영업이익 596억원...전년 대비 34.3%↓

코스닥 상장사 원익QnC[074600]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596억원으로 전년보다 34.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9천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순이익은 9억6천만원으로 98.4% 줄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81억원)와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2천491억원과 54억원이었다.

[단독] 토스, 미국 증시 상장 뒤 국내 상장도 추진한다

5일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토스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국내 상장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지정 감사인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문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스가 미국 상장 이후 국내 증시에도 상장하는 순차적 이중 상장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증시 상장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진 토스가 국내 증시 상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최근 국내 증시 호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양국에 순차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의 기업 가치는 10조~20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스는 이르면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국내 증시에는 외부 감사가 끝난 2028년 상반기쯤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리벨리온, 코스닥 대신 코스피 IPO에 무게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적을 감안해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과거와 다른 방향이다. 리벨리온은 조만간 상장할 시장을 정하고 올해 6~8월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 기타 >